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24일)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문화재관람료 논란 이제 文정부 나서라"

조계종 6월 20일 공식 입장… 헌법소원 언급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 사찰 권리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은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논란'에 조계종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조계종 산하 위원회나 협의회 차원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논의와 성명 발표는 있었지만 종단차원의 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논란 해소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찰이 입장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결국 조계종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종단의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발표했다. 오심 스님은 "최근 천은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사찰을 산적처럼 호도하는 보도 · 여론이 나온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현 총무원장스님의 의지가 커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먼저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문화 · 자연 ·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역시 전무한 상태"라고 현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는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찰 동의절차 없이 강제로 편입시킨 뒤 이렇다 할 보상책을 내놓지 않은 데 기인한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사찰과 협의 없이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 반감이 형성됐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조계종을 방문, 일방적인 국립공원 해제에 사과 입장을 전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계 부처가 다수 중복되는 등 난항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심 스님은 "관계 부처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나 전통사찰 업무는 문체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농림부 · 문화재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시 통영주민들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요청과 같은 대응을 비롯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관람료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1962년 1월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 공포하면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갈등으로 표출됨에도
정부 미온적 태도 일관하자
12년 만에 정부 강력 비판

정부 대책 강구 안 나서면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처럼
국립공원 지정해제 요청도



수내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100원씩 모은 더불어저금통을 전달하며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에서 의젓함이 느껴진다.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동심이 전한 자비의 저금통

아름다운동행, 수내동어린이집서 더불어저금통 전달식

"집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면서 100원씩 모았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 이준우(7세, 가명)

고사리 손으로 손수 색칠한 저금통에는 돈이 아닌 자비심이 담겨 있었다. 6월 19일 수요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성남시립 수내동어린이집(원장 이계화)의 7세 이하 아동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교육 지원사업에 동참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이 배포한 더불어(魚) 저금통 100여 개를 채워 이날 동행 측에 다시 전달한 것이다.

수내동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더불어(魚) 저금통 전달식에는 원생 125명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직원이 함께 자리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자비행보는 어른들과 다름이 없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안마해드리기, 빨래 개어보기, 양말 혼자서 신기 등 미리 부모들과 함께 설정한 '우리 가족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매일 100원씩 모았다. 차곡히 저금통에 모아진 아이들의 자비심은 제법 묵직했다.

아이들의 발언도 의젓했다. 전달식에서 아이들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행복했으면 한다. 아프리카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어 생각이 들때마다 100원씩 저금통에 넣었다"고 말했다.

수내동어린이집 이계화 원장은 "이번 더불어저금통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다"며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줬다. 아이들 대부분이 모은 동전을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쓰지 않고 오롯이 저금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 하나 모여 오늘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어 대견스럽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아이들이 모은 지원금이어서 더욱 소중하다. 아이들이 예쁜 마음을 내어준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매년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불어(魚)저금통을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계종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가 운영 중인 수내동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방송 사장 후보 선상신 · 최윤희 복수 추천

진흥원 이사회 19일 결정… 불교방송 이사회서 최종 선출


선상신


최윤희

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에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과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이 복수 추천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6월 19일 서울 다보빌딩 진흥원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사장 후보로 선상신 사장과 최윤희 국장을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진흥원 사무국은 이날 이사회 논의결과를 불교방송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불교방송 재단은 진흥원의 후보 복수추천에 따라 향후 이사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선상신 현 사장의 임기는 9월 26일까지다.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은 1989년 불교방송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이사와 본부장, 국가디자인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아태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15년 9월부터 불교방송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윤희 라디오제작국장은 불교방송 공채 2기로 입사했으며, '거룩한 만남' '무명을 밝히고' 등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했으며 편성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 –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A4 · 5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 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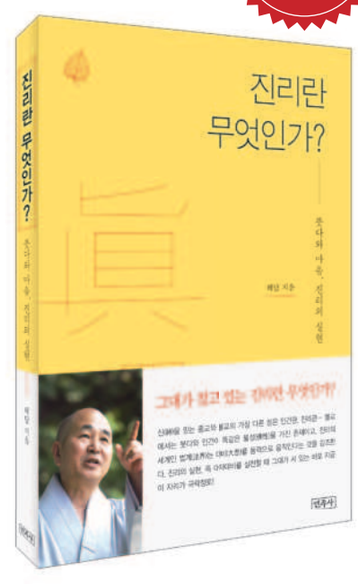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고법 판사 "선학원 인재 그렇게 없나"

서울고법,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서

6월 18일 항소심 심리 열려
1960년대 정관변경 등 공방
법진 스님 이사장직 유지에
재판장도 견해 이례적 밝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이사장을 하는 게 법원 입장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학원은 법진 스님 아니면 조직을 이끌 인재가 없는 곳인가 의문이다."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6월 확정판결을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 심리 현장.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왕정옥 재판장이 심리가 진행된 6월 18일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채권자인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들의 법률대리인은 선학원 최초 정관에 삽입된 변경 불가능한 조항(평의원회 운영)이 1965년 4월 24일 정관변경되면서 폐지된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선학원 최초 정관에 따르면 제20조는 "평의원회는 평의원 반수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사를 개최할 수 없다", 제22조는 "제20조 및 본조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고, 또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최초 정관이 임의기관인 평의원회를 폐지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이사회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이사장으로 유임하는 등 선학원 이사회 의결이 과연 선학원 설립의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은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법진 스님도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리서 왕정옥 재판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직을 유지하는데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왕 재판장은 "이 정도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 집단에서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진 스님을 다시 선임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점이 있는 분이 이사장을 하는 게 선학원의 선택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단법인 의사는 존중하나 외부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결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배경에 대해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선학원의 불교정화운동으로 지금의 조계종이 탄생했다"고 말하자 왕 재판장은 "그런 곳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징역6월 판결을 받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이어 "물론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왕 재판장은 "그래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왕 재판장은 "성범죄에 연루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누명이라며 정치적 음모를 주장한다. 하지만 성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스님뿐만 아니라 목사 · 신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리에서는 선학원 이사회가 지난 1월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학원 이사회는 전국 분원이 재단법인에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단에 증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어느 재단도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을 증여하게끔 강제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조계종 종관위원장 혜일 스님 선출

6월 19일 제112차 회의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총무원장 문화특별보좌관 혜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12차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위원장에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했다.

前위원장인 성행 스님은 앞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로 선출되면서 위원장을 사직했다.

혜일 스님은 위원장 선출 직후 "부족하지만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인 지원 스님 후임으로 우송 스님(신흥사 주지)과 지상 스님(총무원 총무국장)을 복수 추천키로 했다.

한편 기타 안건에서는 동국대 정각원 지도법사 등 종단서 검증된 스님들이 동국대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해 올바른 불자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또한 현재 인문대 · 약대에 비해 미진한 공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호섭 기자

교수불자대회 '4차산업 · 불교'

불교를 대표하는 지성들이 한데 모여 4차산업과 불교의 접점을 논한다.

(사)한국불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성규, 이하 교불련)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교수불자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을 비롯해 30여 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기조 강연으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4차산업 문명에 대한 불교적 조명'을 주제로 진행한다.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는 '명상, 뇌를 바꾼다'를, 박창규 성균관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각각 특별강연을 펼친다.

또한 △인지과학과 융합명상 △응용불교 △인공지능과 불교 등 7개 분과에 거쳐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현실 참여를 위한 담론의 장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국내 3대 종교지도자들과 정관계 인사,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3대 종교, 사회적경제 적극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종교계 공동 선언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등 국내 3대 종교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대 종교계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림형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3대 종교는 '사회적경제의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대 종교는 △사회적 조직 적극 지원 △종교계 내 사회적경제 교육과 홍보 △사회적경제 주체 배출 등을 다짐하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3법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된다.

원행 스님은 "사회적경제 활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공존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와 이웃을 한 몸으로 여기라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다르지 않다"며 "사회 양극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웃종교와 공존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종교계와 사회적경제가 힘을 합하면 일자리, 소득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정부혁신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를 정비하고, 종교계와 적극 협력해 포용국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대 종교 선언 이후에는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각 종교계 사회적기업의 홍보가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유력후보 사퇴' 대흥사 선거 2파전

법조 · 법상 스님 대결… 보각 · 법인 스님 사퇴

前주지 월우 스님의 사직에 따라 차기 주지 선출을 6월 26일 실시하는 조계종 제22교구본사 해남 대흥사 선거에 6월 20일 기준 2명의 후보만이 남았다. 앞서 법인 · 법조 · 보각 · 법상 스님 등 4명이 나란히 후보등록을 마쳤지만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법인 스님과 보각 스님이 20일 후보사퇴하면서 대흥사 주지선거가 새 국면을 맞았다.

유력후보의 사퇴 배경에는 6월 19일 '대흥사 미래를 생각하는 승가모임'이 발표한 입장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승가모임은 "대흥사 교구본사주지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교구 내의 몇몇 스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내세우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본사주지 선거를 목도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승가모임은 주지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유력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대흥사 차기 주지 선거는 법조 스님과 법상 스님의 양자대결로 좁혀졌다. 하지만 대흥사가 그동안 주지선출 과정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단일 후보를 추대해왔다는 점에서 남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 경율론 · 선어록 수록된다

편찬추진위, 수록범위 · 체제 확정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 지홍)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불교성전 수록범위를 경 · 율 · 론 3장과 선어록으로 확정했다.

불교성전편찬추진위는 4월 18일 상임위와 기획위 각 위원을 위촉했으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는 불교성전 구성을 불법승 삼보에 따른 주제별로 진행하며, 여기에 시대별로 중요한 주제를 삽입하기로 했다.

먼저 1장 '거룩한 부처님'에는 삼귀의와 부처님의 생애, 2장 '위대한 가르침'에는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중도 등의 기본 교설이 담긴다. 3장 '자비보살의 길'에는 불보살과 보시, 지계, 인욕 등이, 4장 '부처님의 나라(불국토)'에서는 전법과 관계, 불자로서의 삶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목차와 주제 명칭 등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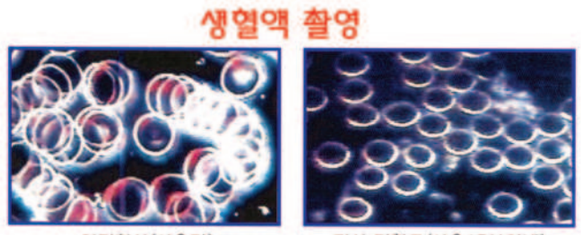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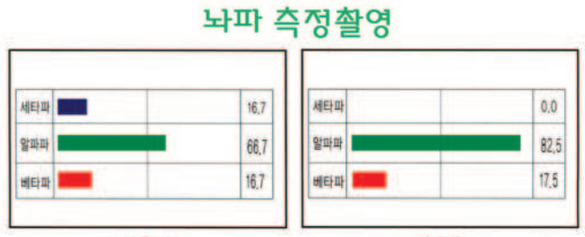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유생들이 먼저 알아본 의승장 영규 업적

김성순 연구위원, 첫 공개 '영규사실기' 분석 ·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2일 동북아불교硏 학술대회서
영규 대사 기록 희소 '중요자료'
서산 · 사명 비해 불교 선양 전무
200년 후 계룡산에 사우 마련돼
"영규사실기, 불교 · 유교 시각차 해소 위한 유교 지식인의 노력"
고양 원각사 소장 성보들 조명도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활약했던 기허 영규 대사의 행장이 담긴 기록이 발굴돼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다. 기록 분석 결과 영규 대사의 공적은 서산계에 비해 불교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영규 대사의 선양은 유교적 시각이 가미돼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6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 개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제9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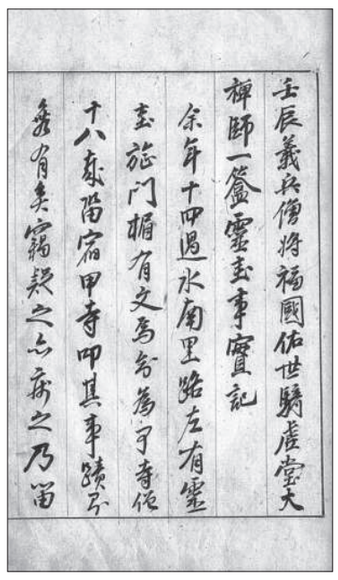
이날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승군 영규대사의 활동 연구'를 발표한 김성순 연구위원은 원각사에 소장된 〈갑사사적(岬寺史蹟)〉에 수록된 '임진의병승장복국우세 기허당대선사일합영규사실기(壬辰義兵僧將福國祐世騎虛堂大禪師一盒靈圭事實記, 이하 영규사실기)'를 분석했다.

〈갑사사적〉은 '갑사사적시종기'와 한시, '영규사실기'로 구성돼 있으며, 학산거사 김상표가 서(序)를 쓰고, 호은산인 임옥현이 저술한 것이다.

특히 대중에 처음 공개된 '영규사실기'는 비문 외에 영규 대사 관련 기록이 거의 없는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규 대사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영규사실기〉는 영규 대사의 생애 전반을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영규 대사는 계룡면 널티 출신으로 밀양박씨다. 그는 19세에 계룡산 만정 북록(현 연천봉) 청련암에서 출가했으며, 영변 묘향산에서 서산 문하에서 20년간 수학하며 여러 범어경전과 외서를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영규 대사는 은사의 뜻에 따라 갑사로 가서 주석하게 된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장으로 활약한 기허 영규대사의 진영(사진 왼쪽)과 영규대사의 행적이 담긴 사실기(사진 오른쪽)의 모습. 사실기는 고양 원각사가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또한 〈영규사실기〉에는 영규 대사가 갑사에서 불목하니로 살았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윤색들이 보여진다. 〈영규사실기〉에는 영규 대사가 갑사에 있으면서 사제들을 도와 스스로 장작을 잡았고, 이를 쪼개 목검처럼 사용해 무예를 익히는 것이 묘사돼 있다. 기다란 박달나무를 창고에 숨겼다고 기술돼 있는데, 이는 전란을 예지하고 무기가 될 만한 나무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게 김성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승병을 모집해 전장으로 간 영규는 의병장 조헌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는 전과를 세우지만 1592년 8월 18일 금산 연곤평에서의 전투에서 영규와 조헌의 부대는 격전 끝에 전멸하게 된다. 영규의 의승군 활동은 임진왜란 초기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승병궐기의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전란 이후 영규 대사는 불교 내부에서는 추승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실제 영규 대사 사후 200년이 지나서야 계룡산에 진영각이 세워진 것은 이를 설명해주는 단초다. 반면 영규 대사 추승은 당시 지도층이었던 유학자들에게서 이뤄졌다.

18세기 학자인 황경원(1709~1787)은 〈강한집〉 '영규대사사절기'서 유교적 인간상인 '인인(仁人)'을 승려인 영규에게 대입하고 있다.

조인영(1782~1850)은 자신의 문집 〈운석유고〉에서 영규의 의승군 활동에 대해 '불은이 곧 군은(佛恩亦君恩)'이라고 정리하며, 불국토를 수호하듯 왕조를 수호하기 위해 전사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18~19세기에 걸쳐 지도층을 중심으로 영규 대사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가 이뤄지자 그제서야 불교계도 반응하게 된다. 정규한의 문집 〈화산집〉 '기허대사충렬원기'에 따르면 영규 사후 200년이 지나서도 계룡산 갑사에 사우(祠宇)가 없는 것을 스스로 자책하는 승려들이 말이 인용돼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성순 연구원은 "영규에 대한 당시 불교계의 무관심은 그가 불목하니 출신이기 때문일 수 있고, 서산계 법맥에서 분명치 않은 그의 위치 때문일 수 있다"면서 "반면 후세 유생들은 불교보다도 훨씬 열성적으로 영규 대사를 부각시키려 했다. 사후 200년이 지나 세웠던 계룡산 사우마저도 유교 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규사실기'는 영규 대사에 대한 불교와 유과 간의 시각적 불균형을 교정하려 했던 당시 유교 지식인들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학 교수 정각 스님의 '조선통폐지인 연구',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원각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성수' 등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종교활동에 박차 다짐"

한국종교연합 등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서 선언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참회합니다' 문구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의 선언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7대 종교계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생명운동 네트워크' 구축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연합(URI, 상임대표 박경조)과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박인주)는 6월 18일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생명존중 종교인대회에서 7대 교단 소속 종교인들은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통해 생명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선언에는 가섭 스님(불교), 이재성 사관(개신교 구세군), 이찬구 이사(민족종교), 오병두 회장(유교), 이여정 교무(원불교), 윤태원 서울교구장(천도교), 윤시몬 수녀(천주교) 등 각 종교계 종교인이 대표로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생태 · 생명 방생, 녹색신행 자리매김을"

불교환경연대, '방생' 주제 녹색불교심포지엄 개최

필(必)환경 시대, 녹색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생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녹색불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은 '불교적 삶과 방생' 발표를 통해 현재 방생문화를 진단하고 시대에 맞는 방생을 제언했다.

법장 스님은 현대적 의미의 방생문화의 근거를 〈범망경〉서 찾았다.

"〈범망경〉의 개념은 방생에 대한 보다 발전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역설한 법장 스님은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만 생명이라 생각고 이를 풀어주는 방생을 했다. 앞으로의 방생은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녹색불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교환경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드나무 심기를 통한 수질정화운동 등과 같은 사업으로 방생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는 '생태적 방생의 다양성과 버드나무심기운동의 가능성' 발표를 통해 불교환경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버드나무 심기운동이 어떻게 생태 방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오충현 교수는 "버드나무를 하천에 심게 되면, 주변 수질과 공기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중표 前 전남대 교수가 '불살생의 가르침과 방생, 생명살림의 전통'을,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이 '티베트불교의 생명존중과 방생문화'를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사항 톺아본다

조계종복지재단, 26일 복지포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재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 일괄변경으로 인한 통장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의 차질 발생 등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행정업무가 늘어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서기관의 발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장과 법인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02)6334-2212

윤호섭 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02·720·9600

한국인을 위한 2019년도 *선착순 마감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11월 1일부터 출발, 법문일정 : 11월 4일-6일(3일간)
주 관 |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 여수석천사 진옥스님
▶ 법회 행사는 보시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11/1 출발 달라이라마 법문 8일 ------ 230만원
B 11/2 출발 법문 + 델리관광 8일 ------ 230만원
C 11/2 출발 법문과 남인도 순례 11일 275만원
D 10/31 출발 법문과 인도 성지 15일 ---- 310만원
E 11/2 출발 법문과 부탄 순례 11일 ---- 410만원

황금빛 불탑의 나라 특가
미얀마 성지순례 7일
9월 20일 출발 ~ 9월 26일 도착
178 만원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양곤-바간-만달레이-삔다야-헤호(2박)-양곤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구법의 길을 따라서
실크로드·돈황 10일
9월 20일 출발 / 10월 14일 출발 259 만원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15명 이상 인솔자 동행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

2600년 불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선종.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선종사에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의 창건주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펼친 선사상의 위상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6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라는 주제로 제3회 대행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학술대회서는 대행선의 특징과 한국 선종사와의 연결고리를 톺아보는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연구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스승 없이 내면 집중한 대행선사…

"붓다와 대행선사 定學, 실천 강조"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초기경전과 대행선사 법문 통해
정학수행 공통 · 차이점 비교연구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은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선종의 특성과는 다르게 초기불교의 삼학수행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며, 심봉(心捧)의 등장과 함께 불성과 주인공을 핵심으로 다루는 차이점을 보였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定學)수행 비교연구'를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초기경전과 대행선사의 법문을 담은 〈허공을 걷는 길〉을 비교했다.

정 교수는 먼저 붓다와 대행선사 모두 삼학의 실천수행으로 정학수행을 강조했다는 점을 짚었다. 붓다가 팔정도 안에서 계정혜 삼학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혜학을 핵심으로 삼학을 귀결했다면, 대행선사의 삼학은 정학 핵심으로 귀결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한 정향이 대행선의 핵심 가르침인 주인공과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다. 초기불교에서 정학이 삼학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대행선의 정향도 마음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행선사의 정학을 초기경전 기준에 따라 '정진(精進)' '염(念)' '정(定)'으로 구분했다.

정 교수는 '정진'과 관련해 대행선의 정진이 노력 차원을 넘어 일상삼매 · 평등선정과 동등한 위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대행선은 정진을 통해 일상의 삶과 정진을 분리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진을 게으름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준다"며 "정진은 수행의 발전을 통해 노력을 넘어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로 발전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이어 대행선의 '정(定)'이 대상에 집중하는 의미를 넘어 '심봉(心捧)'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봉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집중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심봉은 수행자의 의지처로 확장한다. 동시에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라며 "대행선의 심봉은 정학을 위한 기준이다. 심봉은 집중의 역할에서 그 의미를 확장, 세상이치의 근원이고 깨달음의 영역으로 펼쳐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기불교와 대행선의 비교를 통해 정 교수는 "초기불교는 삼학으로 점진적 수행법을 혜학에서 정리하고자 했고, 대행선은 정학으로 삼학이 회통하는 원리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붓다와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정학이라는 실천과 체험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박재현 동명대 교수



김방룡 충남대 교수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대행선사 포교, '쉬운 불교' 방점"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日하쿠인 스님과 포교방식 비교
지방포교 · 기록물 활용 등 유사

"일본 에도시대 임제종 중흥조인 하쿠인 에카쿠 스님과 한국 근현대 고승 묘공당 대행 스님의 대중포교 방식은 일반 민중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스님은 모두 민중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도왔고, 지방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불교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일본 근세 임제종의 중흥조로 평가되는 하쿠인 에카쿠 스님(1685~1786)과 대행선사의 포교방식을 비교했다. 그는 '하쿠인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두 스님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민중을 위한 대중포교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하쿠인 스님과 대행선사는 △포교 대상이 일반민중에 집중 △지방포교에 관심 △문서와 매체를 이용한 기록 △문화예술에 관심 △교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불 강조 등에서 포교방법의 유사성을 보였다.

먼저 하쿠인 스님은 다양한 저서에서 짧은 문장과 의성어 등을 사용하면서 일반인에게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용어를 쉽게 설명했다. 가령 '약사여래'를 설명할 때는 '일체중생의 번뇌를 치료해 마음속의 고뇌를 없애 구제하고, 이것을 표현한 약사에 앉는다'고 풀어 설명했다. 대행선사 역시 1990년대 한자중심의 불교용어를 현대용어로 풀어 반야심경을 비롯한 각종 경전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뿐만 아니라 두 스님은 지방포교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쿠인 스님은 에도를 벗어나 히다 지역에서 〈관음경〉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으며, 대행선사는 전국지원을 개원하고 지방법회를 찾아가 꾸준히 법문했다. 또한 하쿠인 스님이 종이를 사용해 후대를 위한 저작물을 남기고, 대행선사가 녹음과 녹화로 법문을 전하며 기록물을 남긴 점 등도 유사한 포교방법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하쿠인과 대행은 시대는 달랐지만 불교의 핵심을 일반 대중에게 잘 전달해준 선각자이자 대비심을 발현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쿠인 스님과 대행선사는 대중포교를 바탕으로 현대의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불자들의 환경운동 참여 독려 △사회적 협동기업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 △문화활동 투자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제시했다.

"대행선관법, 천태 원돈지관과 같아"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

'법화경' 내 제법실상 등 가르침
대행선사 '한마음'으로 달리 불려

"천태와 대행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명이 전혀 달랐다. 천태는 남북조불교를 통합 회통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었으므로, 불교의 교문과 관문에 대한 해석이 방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대행은 근현대 전환기의 한국사회를 겪었고, 그의 시대는 산업화와 정보화시대까지 걸쳐져 있다."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사의 관법'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그는 〈법화경〉과 이에 의거해 형성된 천태 교관의 관점에서 대행선사의 교화와 행법을 살폈다.

오 연구원은 우선 〈법화경〉 '방편품'에 설해진 제법실상과 일대사인연과 같은 특정 교설과 대행선사의 전법교화의 상통점부터 조명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여러 경전마다 연기 · 중도 · 진여 · 여래장 · 법성으로 설명되는 가운데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제법실상'을 오 연구원은 주목했다.

그는 대행선사 법문 중에서 실상에 대한 내용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한마음·주인공으로 선불교 계승”



제3회 대행선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이 대중과 토론하는 모습.

을 추려 대행선사가 강조하는 ‘한마음’이 결국 실상의 다른 표현임을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대행은 모든 존재의 이치를 불성이라 한다. 그것은 진리이며, 일체의 근본이며, 오직 하나이며, 전체이므로 ‘한’이라고 하고, 그 진리는 또한 일체중생의 마음과 둘이 아니므로 ‘마음’이란 말을 붙여 ‘한마음’이라고 한다”면서 “중생이 본연의 근본자리로 돌아가면 그대로 일체 제불의 모습, 성품, 바탕 등의 부처 살림살이가 나타나므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이며, 이것 역시 제법실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대행선사의 주인공관법이 천태의 원돈지관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원돈지관의 사종삼매(四種三昧)인 상좌(常坐)·상행(常行)·반행반좌(半行半坐)·비행비좌(非行非坐) 가운데 대행선사의 관법이 비행비좌삼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대행선사가 설한 “굳은 신심을 지닌 수행자라면 마음공부에 단계라는 것은 없다. 평등한 진리이기 때문에 계단이 없다”는 행법에서 찾았다.

오 연구원은 “평등한 진리는 원(員)이며, 단계가 없음은 돈(頓)이다. 한마음이라는 큰 원리는 원이며, ‘몰락’ 행함은 돈이다. 대행선사는 대부분의 법문 가운데서 몰락 행할 것을 강조했다”며 “주인공에 맡김과 놓음 등의 행법은 ‘지(止)’이고, 지켜봄과 관함 등은 ‘관(觀)’에 해당한다. 결국 대행선관법이 원돈지관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대행은 관법을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돌려쓰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완벽히 비운 자리에서 무궁무진한 쓰임이 나옴까지도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이것은 ‘개시오입(開示悟入)불지견’에서 ‘개시오’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마지막 ‘입불지견도(入佛知見道)’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대행의 크나큰 스승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행 스님 생애, 불교 개혁 의미”

박재현 동명대 교수

만해·한암 스님의 근대불교 개혁

대행 스님 전법활동도 정신 같아

“만해 스님과 한암 스님이 근대시기 한국불교가 모색했던 개혁방향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면, 대행 스님은 현대와 미래의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라는 주제로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만해 스님과 한암 스님의 불교개혁 방향을 정리하고, 대행선사의 생애도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먼저 만해 스님과 한암 스님이 제시한 선불교 개혁방안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는 “만해 스님은 근대의식과 선에 입각한 자유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자유와 평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근대의식과 행동주체의 자발성을 중시하는 선 의식이 만해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었다”며 “만해는 선을 통해 이념 너머의 인간 존재의 본래적 자유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는 근대적이거나 탈근대적인 면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암 스님에 대해서는 “의례의 체계화와 사판적 역량강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자강 노선을 선택했다. 선 근본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인 만공과 달리, 사판적이고 행정적인 관점에서 승가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택했다”면서 “한암 스님은 본래성불의 원리적 절대성을 애써 옹호하지 않았고 사교입선에 목매지도 않았다. 그는 계행과 독경, 의례는 물론이고 사찰운영 전반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대행선사가 1980년대부터 기존의 한국불교와 다른 방식으로 법을 펼치고, 포교활동을 전개한 것이 만해·한암 스님의 활동처럼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 것으로 정리했다.

“주인공관법, 독자적 선 수행법”

김방룡 충남대 교수

위빠사나·지관·간화선 등과 달라

‘주인공’ 중심으로 새 영역 구축

“대행의 주인공관법은 위빠사나나 천태의 지관이나 대혜의 간화와도 다른 독특한 관법이다.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놓고 또 지켜보면서 이뤄지는 이 관법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심관이 성숙한 이후에는 무심관으로 들어가라고 제시하고 있다. 비록 조사선이나 간화선과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국 본래면목을 깨닫도록 하는 데 같은 길을 제시한다. 주인공관법은 대행이 철저한 두타행을 통해 깨달음 이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선수행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대행선사가 수행법으로 제시한 주인공관법이 선(禪)을 정의하는 실천론의 핵심임을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현 시점에서 대행선에 대한 단정적인 정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행선이란 1차적으로 ‘대행의 선’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대행의 선풍 가운데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대행의 선’ 또한 포함된다”며 “대행이 한 평생 선과 관련된 행적을 나툰 가운데,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 대행선은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에서 대행선이 하나의 선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혜능의 남종선, 대혜의 간화선, 지눌의 보조선 등 다양한 이름의 선이 존재하지만, 이는 선의 보편성과 선풍의 독자성이 공존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행이 갖은 고행을 통해 체험하고 깨달은 경지와 제자를 양성하고 대중을 교화한 선풍, 앞으로 영향일 끼칠 대행의 선풍을 ‘대행선’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대행이 수많은 조사와 선지식들이 깨달은 선의 세계를 체험하고, 제자들을 제접하는 데 자신의 독특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행선사가 구도과정에서 특별한 스승이 없었고, 일반적인 출가자들처럼 사찰이나 암자에 기거하며 수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행선사가 자신의 의문을 스승이나 학문에서 찾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점이 대행선을 형성하는 주 요인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마음’과 ‘주인공’을 대행선의 기초로 정의하고, 이것이 곧 선사상을 이루는 진리관·수증론으로 대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행은 우리의 본래면목을 한마음 또는 주인공, 때론 ‘한마음 주인공’이라 명명한다. 언뜻 한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주인공은 개체적인 나의 본래면목을 칭하는 용어로 보인다”면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주 만물의 근본원리를 한마음과 주인공이란 이름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또한 대행선사의 주인공관법이 선사상의 수증론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공관법은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化城)의 비유’처럼 수행자에게 ‘주인공’이라는 임시의 성을 만들고, 그것이 참나임을 믿게 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즉 ‘믿음’ ‘놓음’ ‘지켜봄’을 특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낸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대행선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행이 한암의 선사상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주인공관법이 정혜쌍수와 간화참구라고 할 수 있는지 △대행선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련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했다.

“대행선 사상, 한국불교사 한획”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고된 현실서 집중한 내면의 소리

겉보기 달라도 전통 선불교 계승

“대행선이 지닌 가치는 대행의 독자적 수행과 사상이 오랜 불교사상·수행전통과 맞닿아 있는 점이다. 한마음과 주인공, 오공의식은 불교의 전통성과 맞닿고 그 사상의 핵심은 불성·여래장이며, 진여법신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한국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를 주제로 현대불교에서 대행선이 사회에 전하는 가치를 조명했다. 그는 대행선이 전통불교와 선의 사상, 수행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사상과 수행의 정통·전통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대행선사가 보여준 대중교화는 생활불교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행선이 현대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은 사상임을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우선 대행선이 전통의 선을 계승하거나 선종계의 부류에 속하지 않지만 핵심사상은 다르지 않음에 주목했다. 그는 “대행은 전통불교의 선교학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나 수행체계를 확립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대행선은 선가의 본래성불을 연원으로 한다. 즉 분별이 없고 조작이 없으며, 깨침과 보살행의 실천이 상응하고 있다”며 “대행의 사상과 수행원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신앙심의 근본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본성을 본다’ ‘자성이 드러난다’ 등의 선구(禪句)는 대행의 수선(修禪)상에서 체험된 어언(語言)이지 중국 선종계나 한국 간화선의 일맥으로서의 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본래성인 주인공은 불성이며, 무아이며, 본래자기이며, 진실한 자기다. 본래자신인 주인공은 주체와 객체, 자와 타를 전제로 한 주중의 주이다. 그러므로 대행이 깨친 주인공은 중국 선가의 주인공의 의미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대행선사가 출가 후 사교입선 하거나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 참선에 몰두해 깨침을 체득하는 일반적인 구도과정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한 생애에 주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립된 한마음과 주인공·오공의식을 대행사상의 특징이자 독자성으로 규정했다.

오 연구원은 “대행의 수행과 사상은 자연과 생명의 실상을 기초로 내면의 소리를 통해 자기본래성을 회복하면서 이뤄졌다. 즉 고된 현실과 내면의 본래성이 불이(佛二)함을 깨닫게 된다”며 “대행의 한마음이나 주인공 사상이 본래성불이나 불성을 연원으로 하는 점, 한암과의 거량, 선가의 무심관과 동일한 측면은 전통 선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이어 “대행선의 전통성과 독자성은 오공의식을 실천하는 가치성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에 기초한 생활불교 실천은 신비주의나 점복과 같은 비불교적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한국불교를 오랫동안 지배하던 비불교적 모습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을 객체적 피동적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전환시키고, 경전을 뜻으로 풀어 쓴 것은 시대상황에 맞는 불교를 선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날이 변화하는 빛고을 불교”

광주불교연합회 봉축 기획단장 시각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천에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제법 많은 가족들이 산책을 나왔다. 광주천은 심한 악취와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 광주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찾지 않게 된 장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이날은 특별히 예외였다.

바로 이날은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가 주최한 전통등전시회가 열린 첫 주말이기도 했다. 가족들은 아이들을 위한 뽀로로 친구들 전통등(燈) 앞에서 손가락을 V자 손을 만들며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고 있었다. 광주천에는 60여개의 전통등이 전시돼 어두운 광주천을 밝혔다.

전날인 5월 4일 5.18민주광장에서는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이 모여 찬불가에 맞추어 춤을 추며 땀을 흘렸다. 어린이 · 청소년법회가 거의 없는 광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이날은 광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가 열리기 전 마지막 율동을 가다듬는 시간이었다.

빛고을관등회는 광주지역 봉축행사로 지난 2014년 이후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의 표정이다. 어린이 · 청소년이 춤을 추고, 60~70대의 노(老)보살들이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모습은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한 광주불교의 모습이다. 그것도 불교가 가장 척박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호남의 땅에서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단체율동을 하는 장면은 감동이었다.

그 중심에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고 있는 인물이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관등회 봉축기획단장(이하 기획단장) 시각 스님(만덕사 주지)이다.

“호남지역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의 요청으로 첫 기획단장을 맡아 업무를 시작한 시각 스님의 초발심이다. ‘정말 이대로라면 광주에 불교의 씨가 사라진다’는 당시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 스님들의 우려 속에서 기획단 회의를 시작하게 됐다. “광주지역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행사를 준비하자”는 시각 스님의 말과 함께 광주지역 최고의 불교활동가 10여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광주불교를 변화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봉축행사입니다. 봉축행사를 어떻게 여법(如法)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광주불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광주불교연합회 당시 회장이던 연광 스님과 운영위원 스님들의 헌신적인 동참과 후원이 뒷받침돼 출 · 재가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에 걸쳐 10회의 준비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예산도, 봉사자도 없었다. ‘맨땅에 머리를 박는 심정’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늘 해오던 제등행진을 이어 받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등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 스님의 취지에 광주불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지역 스님들도 행사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불교연합회 전통등기획단(단장 혜월)이 만들어져 광주천 전통등 전시회를 전담하고, 강좌와 사찰별 등(燈) 만들기를 주도한 것이다. 이후 봉축행사는 광주천에서 진행하는 전통등전시회, 봉축법요식, 제등행진, 음악회, 불교단체의 체험부스 등으로 세분화됐다. 2년 후에는 각 사찰과 단체의 연희단이 추가되고, 율동이 첨가되면서 더욱 풍성한 모습을 선보였다.

광주불교의 변화는 봉축행사 참여 인원수에서 가장 먼저 감지됐다. 과거 1000여 명의 불과했던 봉축행사 참가자는 2~4배의 양적 증가를 이뤘다. 그리고 불자들과 봉사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졌다.

2017년부터 참가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행사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사내용 만족도 78.1%, 행사진행 만족도 79.2%, 행사성과 84.2%, 행사환경 만족도 71.1% 등 총 4개 분야의 만족도가 확인됐다. 각 세부별로 최저 0점부터 최고 100점의 표기를 한 점수를 환산한 결과 종합만족도 78.2%를 얻었다.

조사업체 측은 “참가자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행사장인 5.18민주광장은 광주에서 가장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지만 행사환경 만족도가 대부분 낮게 나오는 장소라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라고 평가했다.

2014년부터 변화 모색한 광주
5년간 지역불교 활력 불어넣어
봉축행사 참가자 4배로 증가해
사부대중 자부심도 한껏 높아

시각 스님 단장 소임 내려놓아
능력 있는 후배에게 역할 부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광주불교 발전에 끝없는 후원”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2017년에 비해 2018년 관람만족도 평가도 각 부분별로 1.2%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각 스님은 “2017년부터 어울림마당을 시작하면서 신도들의 참여 공간이 더 많아졌다. 각 사찰과 단체별로 20~30명의 연희단을 구성하고, 전통복장과 춤을 연습해 봉축행사 참여하면서 신도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참가자가 주인공인 축제’ ‘모두가 행복한 초파일’이란 주제에 맞춰 웃고, 즐기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파일 모습이 정착된 모습이다. 이후 기획단에서는 반원형 경기장 형식의 관람석을 설치, 관람석과 무대가 대중에게 더 가깝게 배려했다.

6년간의 노력은 고스란히 광주불교발전의 토대가 됐다. 광주불교연합회 운영위원 스님들의 노고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빛고을관등회는 예전에 없던 변화가 보였다. 각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봉축행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3개 구청에서 거리연등 설치와 봉축탑 점등식을 진행한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과 광주공원에 정림사지석탑과 석가탑을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을 추가로 설치했다. 5 · 18민주광장을 포함하면 3개의 탑과 거리연등이 빛고을 광주를 밝히는 쾌거였다. 더불어 전통등(燈) 전시회를 진행한 광주천과 광주공원 일대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거듭나며, 여러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시각 스님은 올해 봉축행사 회향의 말을 통해 “운영위원회 스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가장 크다. 그리고 연광 스님에 이어 회장소임을 맡으신 동현 스님과 지역 불교활동가,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큰 보탬이 돼 광주봉축행사가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제 시각 스님은 6년간 맡아온 봉축기획단장 소임을 놓는다. 예전 광주불교사암연합회에 이어 2013년부터 새롭게 출발한 광주불교연합회의 맡은 소임 또한 내려놓을 예정이다. 30여 년 간 광주에서 살아온 스님은 수많은 직책과 역할을 통해 광주불교를 지켜온 지킴이다. 그런 스님에게 소감을 물었다.

시각 스님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광주에 젊은 불자들이 정말 많았다.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를 하는 사찰도 20여 곳에 이르고,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의기로 뭉친 젊은 불자들 중심으로 불교가 활성화된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당시 스님들이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지금은 한층 더 나은 광주불교가 됐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스님은 이어 “이제 더 젊고 유능한 스님과 지역 불자들이 지역불교에 책임감을 갖고 나서고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늘 감사와 후원의 마음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6년간의 봉축행사 여정은 광주불교에 큰 발자취였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광주역불교계의 공통된 바람이다. 이제 온전히 광주지역 사부대중의 몫이다.

시각 스님은…

범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태고종 종정 예경실 예경위원과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지방종회의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태고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과 만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14년부터 광주지역 봉축행사 기획을 맡아 큰 변화를 이끌어온 시각 스님. 시각 스님은 이제 공식 소임을 내려놓고 평범한 구성원으로 돌아간다.



올해 빛고을관등회 연희율동에 참가한 연희단. 율동을 선보이는 연희단의 미소가 환희롭다.



빛고을관등회는 과거에 비해 참가자들이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쾌거를 얻었다.

“민들레처럼 국경 넘어 사랑을”

국경없는민들레, 7월 인도 라다크 레서 의료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민들레는 바람을 타고 벽을 넘어 어디든 정착해 꽃을 피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민들레처럼 국경을 넘어 의료봉사로 부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됐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울산 정토마을이 운영하는 해외의료구호사업단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한 오지마을을 방문, 지원하고 있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가 오는 7월 8~17일 인도 라다크(Ladakh) 레(Leh)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레는 해발고도 3,520m 고산 지대로 4개월의 여름(6월~9월)과 8개월의 긴 겨울(10월~5월)이 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며 눈으로 인해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작은 티베트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시설 및 환경은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레 지역에 위치한 ‘라다크 심장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라다크 심장재단은 이사장 초겔 스님이 라다크 고산지대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운 의료재단이다.

라다크를 비롯한 히말라야 지역은 고산지대로 기압이 낮아 심장 기능이 중요하다. 몸에 피를 보내야하는 심장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요구된다. 라다크 지역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 판막이 닫히지 않는 병에 걸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심장병 발병율이 높다.

라다크 심장재단 병원서 활동
전문 봉사인력 40명 의료지원
의료물품과 생활용품도 전달
11월에는 9박10일 스리랑카로

국경없는민들레 의료봉사팀은 승가 10여 명을 포함해 양방과 한방 전문의료진, 홍보 봉사팀 등 40명이 동참한다. 전문 의료장비를 직접 가져가 체계적으로 진찰하고 문진으로 예방 및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가 다가오는 7월 8~17일 인도 라다크(Ladakh) 레(Leh) 지역으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사진은 지난해 의료구호활동 사진.

한국에서 마련한 의료 물품 및 생활품도 지원한다. 의료물품은 어린이종합영양제, 칼슘제, 영양제, 철분제, 오메가 3, 파스, 구충제 등이며 생활용품은 겨울 보온에 필요한 털장갑, 모자, 양말, 겨울 점퍼, 넥워머 등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미얀마, 보드가야를 비롯해 해외 오지를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라다크는 의료구호 활동 4회째를 맞는다. 1년에 한 번씩 구호활동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두 번으로 횟수는 늘리고 다가올 11월 11일에는 9박10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로 떠난다. 국경없는민들레는 구체적인 의료구호사업을 위해 서비스뿐 아니라 진료소를 세우고 의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토마을 사무국 김현아 팀장은 “정토마을 비전이 ‘인류와 일체 생명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다’이다”며 “국경없는민들레는 해외 의료 구호 사업으로 이타행을 실천하고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경없는민들레는 해외 구호사업 후원 동참도 독려했다. 후원은 의료약품 및 각 나라특성에 맞는 생활 용품 등으로 하면 된다. (052)255-8588

진여원 “호국은 미래 잇는 국민정신”

제21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 보훈가족 위안행사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보훈 가족을 초청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진여 호국영령 위령재가 봉행됐다. <사진>

대한불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13일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내 현충근린공원에서 제21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는 위령재와 추모식으로 시작해 유공자 표창 및 보훈 유가족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장학금은 유가족 자녀 14명에게 총 540만원이 전달됐으며, 위령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총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보훈단체 및 유가족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선 스님은 “진여원과 여러 보훈가족이 위령재를 봉행하고 애국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드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근간을 들여다보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당한 이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비는 진여원 남보타월 원장을 비롯해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건립됐으며 6.25 전쟁 등 애국선열 428위의 영령이 모셔져 있다. 특히 현충 그린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비문을 회장 경선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령재는 부산 북구청과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불교연합회, 53사단 125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송월 스님 서예 · 문인화 전시회

6월 30일까지 군산경찰서 2층 갤러리서

태고종 서예 문인화부문 명인으로 선정된 군산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의 작품이 군산 경찰서 2층 갤러리에 전시되고 있다. 6월 30일까지 ‘붓꽃 나를 놓아주는 지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담담한 수묵화법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송월 스님의 서예와 문인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월 스님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서체를 감상할 수 있다.

송월 스님은 “자연 속에서 무심히 그렸던 작품 한 점마다 붓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며 “이번 작품전이 감상하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전시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낙단보 마애사 1주년 방생법회

의성지역 사부대중 300여 명 함께 기념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말사 낙단보 마애사(주지 원종)는 6월 15일 수륙고혼 천도재를 비롯해 방생법회 및 효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방생법회에는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과 김주수 의성군수, 의성군의회 의원과 지역기관장, 단체장, 의성군포교사단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낙단보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은 “마애사 개원 1주년을 맞아 방생도량에서 수륙재를 봉행하고, 그동안 마애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사찰음식으로 공양 올리고 싶어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게 됐다”며 “서로가 나눠 가지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은 그동안 고마움과 나눔의 마음으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의성군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하고, 단일면 단체발전기금 100만원을 면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예마당

부산 BBS, 제4회 문예창작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문예창작마당이 개최됐다.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15일 삼정더파크 동물원에서 제4회 부산문예창작마당을 개최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최한 부산문예창작마당에는 부산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분야는 글짓기, 그리기, 사진 등이며 주제는 ‘만남’이 제시됐다.

부산BBS 사장 수불 스님은 “부산불교방송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문예 창작마당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 작품은 수상 결과는 6월 28일 부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100일기도 회향 ‘생명 나눔으로’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난치병 후원금 전달

부산 여래사불교대학 불자들이 가족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살 것을 다짐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이어갔다. 회향일을 맞아 기도에 동참한 불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난치병 환우들을 위해 회향하며 “난치병 환우는 또 다른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여래사불교대학(학장 원범)은 6월 19일 4층 불교대학 내 법당에서 제1차 100일 기도 회향식을 열고,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지난 3월 12일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100일 동안 불자들은 △가족을 부처님같이 생각하기 △108배 참회 △30분간 가족들과 대화하기 △불서 30분 이상 독서 등을 서원하고 실천했다. 아울러 난치병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모은 성금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6월 19일 4층 불교대학 법당에서 난치병 환우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앞으로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하루에 한 번 1000원씩 모은 성금과 불전함에 모인 보시금을 합쳐 우리들의 또 다른 가족인 난치병 환우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여래사불교대학은 7월 5일 오후 7시 불교대학 내 법당에서 ‘공성의 지혜, 공동체의 덕성함양을 위하여’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강사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담당한다. 신상환 대표는 타고르 대학이라 알려진 인도의 비스바 바라띠 대학 인도 티벳학과에서 티벳학 석사,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캘커타 대학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를 받고 조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어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는 〈용수의 사유〉 〈세계의 지붕 자전거 타고 3만리〉 〈풀어 쓴 티벳 현자의 말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중관이취육론〉 등이 있다. 특강 참가비는 3만원이다. 010-8801-403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능찰서 조선불교 중흥지 되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⑫ 봉은사



서울 봉은사 미륵대전서 서울 강남 도심을 바라본 모습. 작은 능찰로 시작해 현재의 대가람이 되기 까지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겪었다.

견성사(見性寺)서 봉은사로

조선 초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진 배불정책은 세조에 이르러 잠시 멈췄다. 덕분에 조선불교는 숨 돌릴 수 있었으나 성종 이후 다시 배불로 치달으며 암울해 졌다. 내불당이 궁 밖으로 옮겨지고 도성 안 비구니 사찰이 철거되었다. 그리고 사대부 여자의 출가가 금지되었다. 친히 국정을 다스린 이후에는 일체의 사찰을 창건하지 못하게 했으며, 옛터에 다시 중창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불교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수록되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 역시 불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 성종의 릉 옆에 있던 견성사를 다시 짓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드러내자 신료들의 반대가 빗발쳤다. 첫 포문은 연산 1년(1495) 12월 7일 홍문관 부제학 박처륜(朴處綸)이 열었다.

"지금 견성사가 능 곁에 가까이 있어 승려들의 불경 외는 소리와 새벽 종소리 저녁 북소리가 능침(陵寢)을 소란하게 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성종대왕의 영이 어찌 심한 우뇌(憂惱)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성종께서 고명 정대하신 성왕(聖王)으로 사교에 현혹되지 않고 깊이 미워하셨는데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철거하지 않으십니까. 바라옵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즉위 초 신하들과 부딪치기 싫은 연산군은 자신의 생각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 견성사 중창 문제는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2년 뒤 다시 불거졌다. 그러자 연산 3년(1497) 7월 18일 홍문관 전한(典翰) 이수공(李守恭) 등이 차자(箚子)를 올렸다.

"지금 또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새 절을 창건하려 하시니, 선왕의 유지에 어찌하며, 성상의 효성에 어찌하렵니까. 이는 비록 대비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성심으로써 간하시면 대비께서도 어찌 차마 성종의 뜻을 위배하여 전하를 불효의 지경으로 빠지게 하겠습니까."

연산 4년(1498) 2월 견성사 중창문제는 연산군과 신료들 사이 첨예하게 논의되었다. 13일 지평(持平) 신복의(辛服義), 정언 곽종번(郭宗蕃)이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토목 역사를 시키는 것은 궁궐을 수선한다 해도 오히려 불가하온데, 더구나 무익한 승사(僧舍)를 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었다.

그 이후 논의를 보면 2, 3일에 한 번씩 신료들의 논의가 있었다. 2월 15일 대사헌 권경우(權景祐), 2월 18일 장령(掌令) 조형(趙珩), 2월 20일 지평 박소영(朴紹榮)과 정언 곽종번(郭宗蕃), 2월 24일 사간(司諫) 이점(李玷), 마침내 2월 26일 좌의정 어세겸(魚世謙)이 견성사 중창은 옳지 않다고 글을 올렸다. 그들은 견성사 중창은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며, 흉년과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정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견성사 중창의 일은 예조판서의 사직으로 이어질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연산 4년(1498) 5월 23일 박안성(朴安性)이 사직서를 올린 것이다. 신하들의 거센 저항에 연산군도 자신의 뜻을 바꿨다. 예조판서 박안성이 전에 견성사가 능실(陵室)과 너무도 가깝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겠으면 먼 곳으로 옮겨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릉 옆에서 지금 수도산 위치로 옮겨 대규모로 확장되었고 그 후 경산제찰(京山諸刹)의 으뜸이 되었다.

봉은사의 특혜와 수난

견성사에서 봉은사로 중창되면서 왕실의 후원이 이어졌다. 연산 5년(1499) 12월 12일 새로 창건한 봉은사에 전토가 없으니, 각도 절에서 거둔 세와 소금을 옮겨 주라고 전교하였다. 뒤이어 봉은사에 봉선사의 전례에 따라 토지를 하사하였다. 그런데 땅이 먼 곳에 있었다. 불편함이 있자 연산 6년(1500) 1월 8일 봉은사에 주는 전세를 가까운 고을의 전세로 바꾸게 하였다.

이처럼 왕실의 관심을 받은 봉은사였지만 중종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중종 때는 공신들을 비롯한 신료들의 권한이 커졌다. 자연히 불교배척 역시 강해 동국여지승람 소재 이외의 사찰을 모두 없애고 사원의 전답을 그 지역 향교에 속하게 하였다. 승과가 폐지되어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급기야 경국대전에 있는 도승조(度僧條)가 삭제

연산군의 견성사 중창 발전
중종 등극하며 위기 맞아
문정왕후 관심에 사격 확대

되면서 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길이 없어졌다.

이런 배불의 분위기가 봉은사에게도 닥쳐왔다. 중종 33년(1538) 9월 19일 신하들은 사찰을 헐어버리고 서적도 태워버려야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봉은사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사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환속되는 승려들로 인해 농민이 많아지고 군액이 보충될 것이며, 세속을 어지럽히는 폐단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다음해 역시 봉은사 폐지가 주장되었다. 신료들의 눈에 불교의 중심은 봉선사와 봉은사였다. 그래서 두 사찰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사찰을 철거하는 것은 뿌리에다 물을 주면서 가지를 자르는 것과 같아 불교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여겼다. 중종 34년(1539) 6월 4일 성균관 생원 유예선(柳禮善) 등이 상소를 올렸다.

"신들의 생각에 이단의 뿌리가 되는 곳은 봉선사와 봉은사입니다. 이들이 내수(內需)를 출입하며 동궁(東宮)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미 장성한 뒤에 이렇게 빙자하는 괴이한 말이 사방에 파다하게 퍼졌으니, 신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픈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들은 이로부터 동궁을 구실로 삼는 일이 더욱 흥기될까 염려됩니다. 이 두 사찰을 철거하여 그 뿌리를 끊어버린다면 화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불교중흥과 봉은사

어려움에 처한 봉은사를 구한 사람은 문정왕후였다. 1545년 인종이 죽고 명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을 하게 된 왕후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불교부흥의 뜻을 폈다. 이때 천거된 고승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행하던 허흥당 보우였다. 그는 중종 4년(1509)에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 금강산에 들어가 6년간 수도하고 하산하였다. 당시 배불정책에 의해 많은 사찰이 사라지고 수행자가 핍박받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입산하여 4년 동안 수행하였다. 그 뒤 산문을 나와 많은 불사를 행하면서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명종 3년(1548) 12월 문정왕후가 불교를 부흥할 고승을 구할 때 천거되어 봉은사 주지에 임명되었다.

그가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선교 양종의 부활이었다. 연산군 때 폐지되어 청계산 청계사로 옮겨진 양종도회소는 유명무실하였다. 그런 양종도회소를 명종 5년(1550년) 부활하고 봉은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하였다. 이때 교종의 본산은 봉선사가 되었다. 다음해 보우는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봉은사의 사격이 전국에서 으뜸이 되었다. 이런 문정왕후의 불교정책에 대해 신료와 성균관 그리고 지방의 유생들이 올린 항소가 300여 건이 넘었다. 이런 주장에 맞서 문정왕후는 오직 나라의 폐단을 구하고자 할 뿐이며, 양종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임금과는 관계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불교중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선종판사에 임명된 보우는 승과를 부활하여 불교계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먼저 각 지역에서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하였다. 평안도 함경도는 각 100명, 전라도 경상도는 각 500명, 황해도 청홍도는 각 400명, 경기 강원도는 각 300명으로 해서 모두 2600명이 양종으로 나누어 응시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가 다른 도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것은 북쪽의 경계이므로 군정의 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양종은 초시에서 각 100명씩 선발하였다. 그리고 명종 7년 4월 12일 예조의 주관으로 봉선사와 봉은사에서 실시한 복시에서 선종 21인 교종 12인을 뽑았다. 이런 계기로 봉은사 앞 들판은 승과평(僧科坪)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때 실시된 승과에 의해 조선 불교중흥의 대조사인 서산대사 청허휴정이 뽑혔으며, 그 후의 승과에서 등용된 사명당 유정도 국난타개의 공을 세우는 허응당 보우가 예견한 것처럼 조선불교를 위한 인재가 선발되었다.

정릉(靖陵)의 천장(遷葬)과 봉은사

이렇게 불교중흥의 중심지가 된 봉은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중종의 묘 정릉(靖陵)의 천장이었다. 중종이 죽자 먼저 돌아간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禧陵) 옆에 묻혔다. 문정대비는 자신이 죽으면 중종과 함께 묻히고 싶었다. 명종 17년(1562) 1월부터 천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명분으로 산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설이 제창되었다. 그해 9월 4일 선릉의 동쪽 기슭으로 정릉이 옮겨졌다.

왕릉을 옮겼으나 지세가 낮은 곳이어서 흙을 쌓아 높이는 공역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해마다 강물이 불어 넘치면 재실에까지 물이 차올랐다. 많은 사람이 분개하였고 같이 묻히고자 했던 문정왕후도 죽어 이곳에 오지 못하고 다른 산에 장지를 정했다.

정릉의 천장으로 봉은사의 사격은 커졌으나 책임을 맡은 보우는 유신들의 극렬한 비판과 불교인들의 모략으로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 전환하려고 회암사를 중건하고 낙성식을 겸하여 무차대회를 계획하지만 문정왕후의 건강악화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문정왕후는 자신의 죽음에 임박해서 내린 언문 유서에서 승과에 대해 옛날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죽자 불교중흥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대신들은 양종과 함께 승과를 폐지하고 보우를 몰아내라는 상소를 올렸다.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이어 양반들의 사찰 참배를 금지하였다.

다음해 4월 명종은 승과를 폐지하는 전교를 내렸다. 보우를 처단하라는 상소가 빈번하자 왕명으로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명종 21년(1566) 그곳에서 제주목사 변협에게 장살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조선불교의 중흥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느리고 평화롭게, 붓다처럼 살기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⑫ 예순 고개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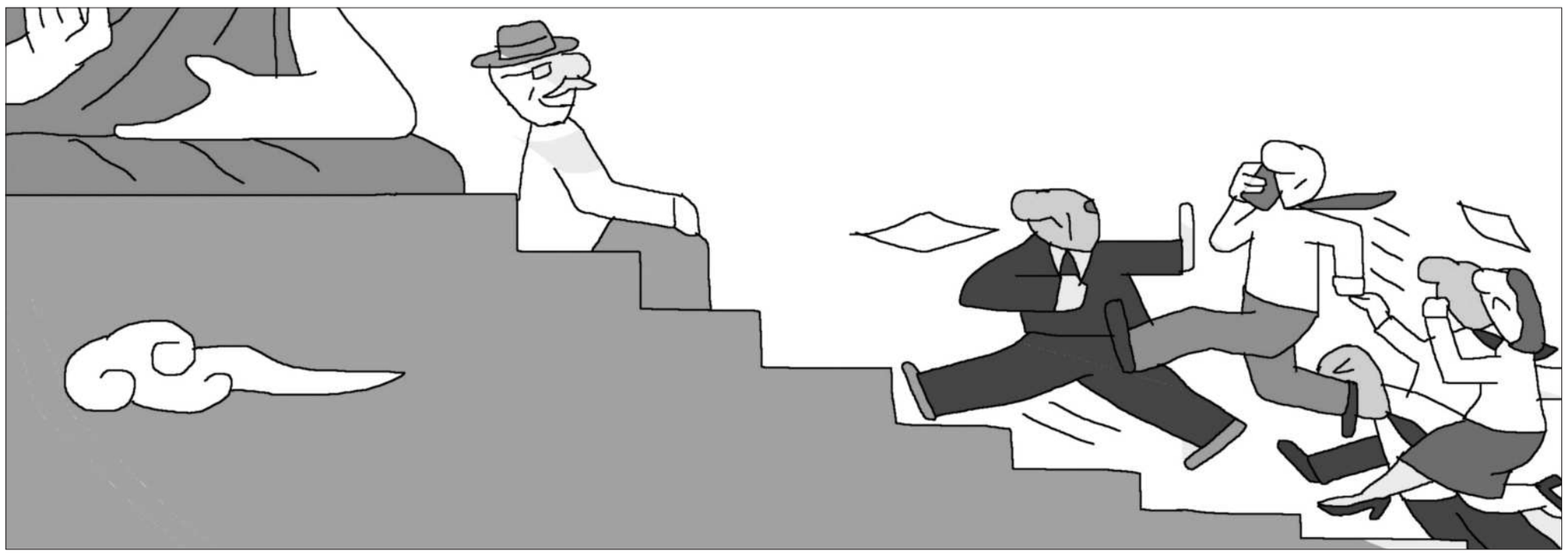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예순 살의 고개를 넘으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60갑자 한 바퀴가 그냥 먹는 세월이 아니다.

일단 노년으로 진입하는 나이다. '요즘 예순은 아직 청춘이지' 라고 해봤자 구차할 뿐. 사람에 따라 늙었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시점이 다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어쨌든 젊지 않다.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갈 때 창에 비치는 쇠락한 프로필을 보고 헉! 한다든지 술 마신 뒷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60대가 되면 신체와 정신에서 전 방위로 노화가 본격 오고 있다는 느낌을 아니 사실을 알게 된다.

여성은 특히 폐경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온 몸의 노화가 눈으로 확인된다. 노화는 해마다 정해진 비율로 조금씩 짙어지지 않는다. 남들은 다 알았겠지만 나에게는 느닷없는 재난처럼 확 다가온다. 거울을 보며 아직 괜찮다고 뻗댈 수 없는 순간이, 결국에는 오고 만다.

젊지 않은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처음에는 고유명사 이름부터 잊어버리는 기억력 감퇴가 가장 두드러진다. 임기응변이나 운전 능력 같은 순발력이 떨어지고, 지구력(꾹 참는 거 안 된다), 집중력(여러 번 읽어야 하는 문장이 많아진다) 이 약해진다. 마음은 앞서 가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마음 따라 움직였다간 탈이 나고 만다.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 해서
친구와의 수다는 이런 식이 된다.
친구/ 최근에 VOD로 그 영화 봤는데 좋더라.
나/ 어떤 영화?
친구/ 아... 제목이 기억 안 나네.
나/ 누가 나온 건데?
친구/ 아 씨... 배우 이름도 생각 안 나. 걔 있잖아? 그 남자, 영상미가 끝내줬던 동성애 영화에 나왔던?
나/ 누구우우? 동성애 영화가 한두 편이냐?
친구/ 아이 참, 그 누구냐. 같이 나온 배우는 죽었잖아.
나/ 아아아~(역시 제목과 배우 이름 바로 튀어나오지 않음)
친구/ 그래 그 남자.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아깝더라. 그 영화에서 같이 나온 걔가 주연이었는데 블라블라블라…

일찍 죽어 아까운 그 남자는 히스 레저, 그 영화는 〈브로크백 마운틴〉, 같이 나온 걔는 제이크 질렌할. 친구가 재미있게 본 영화는 〈프리즈너스〉. 듣다 보니 나도 본 영화였다.

거시기가 거시기하고 거시기 했다는 개그 같은 대화지만 친구와 나는 다 알아듣고 배우의 캐릭터 분석과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의도까지 수준 높은 영화 리뷰를 했다는 말씀이다.

세 명이 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발전한다. 장소는 콩 다방.
1 여인/뭐 마실래? 내가 주문할게.
2 여인/나는 콜드 블루 따뜻한 것!
3 여인/저기요. 콜드 블루는 원래 차게 먹는 거라서 따뜻한 건 없거든요.
1 여인/(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콜드 브루거든요. 차게 우려낸다는 뜻으로 콜드 브루(cold brew)랍니다.
3 여인/나는 캐러멜 프라치노!
2 여인/프라치노 아니고 프라푸치노.
1 여인/ 프라푸치노는 별다방에만 있는 메뉴거든요.
3 여인/ 뭐 그리 복잡해? 그냥 아메리카노!
그리고는 셋이서 서로 수정해주고 보완해주니 이런 게 집단지성이라며 함께 웃는다.

간혹 기억력이 출중해 이런 만담을 할 때면 바로 나서서 알려주고 지적하는 이가 있다. 한번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말하는데 작가 이름을 잘못 읽었다며 웃는 바람에 정작 하고 싶은 작품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작가 이름 제대로 못 읽은 게 뭐 어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이런 다그침과 뽐냄은 짜증난다. 좀 느리고 틀리면 어떤가 말이다. 뭘 말하려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면 된다.

택시를 타고 예술의 전당이 기억 안나 전설의 고향이라 말했더니 기사가 알아듣고 데려다줬다는 이야기가 농담만은 아닐 거 같다. 센스 있는 기사 양반 같으니라고.

남보다 빠른 속도로 알아내고 재빨리 거머쥐어야 했던 나이는 지났다. 남보다 빨리 알아채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온 힘을 짜내야 하는 시기를 지났으니 한편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몸의 노화, 마음의 완화로
느림을 실천하기 좋은 60대
마음과 뇌의 변화 위한 실천을

예순이 되어 좋은 점을 생각해보자

1. 서두르지 않는다. 횡단보도에서 뛰어 건너가는 일은 이제 금지다. 잘못하면 넘어지고 그러다 크게 다치는 수가 있다. 분초를 다툴 일이 없는데도 녹색 점멸등이 깜박거릴 때는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사람들, 혼자 잠시 멈추고 다음을 기다리면 공연히 뻘줌하기도 하겠지만 하다보면 의외로 작은 뿌듯함이 있다. 난 품위를 지킬 나이니까,

2. 남 흉보는 일을 덜 한다. 친구가 멍청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해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나도 그러는데 뭘, 같이 멍청한 짓을 하며 늙어가자고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3. 욕심이 덜 생긴다. 많이 가져봐야 뭐해? 어차피 쓸 데도 많지 않은데. 얼마를 가졌든 감사하며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아껴 쓰며 늙어갈 수 있게 되었다.

4. 느리게 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갈 곳만 보느라 하늘도 나무도 구름도 그저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정원에 핀 작은 풀꽃도 보이고 푸른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보인다. 멈춰 서서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5. 후회 같은 건 개나 줘버려. 회환은 있지만 후회해봤자 뭣할 것인가. 지난 일을 되돌리려 애써봤자 쓸데없음을 알게 된다.

느리게 살기 좋은 나이, 60대

명상지도자이며 신경심리학자인 릭 핸슨은 서두르는 일상이 긴장 호르몬을 유발해 걱정과 짜증거리를 더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저서 〈붓다처럼 살기〉에서 그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가 달라진다며 '느림이 주는 느긋함과 행복감' 을 강조한다.

"마음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 명상과 마음챙김으로 수련하면 신경가소성에 따라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전전두엽의 피질이 활성화 된다."

릭 핸슨은 긍정적인 경험을 내면화하기 위한 수련으로 경험의 순간을 재빨리 흘려보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할 것을 권한다, 어떤 일에 주의를 오래 기울일수록 정서적 자극을 더욱 받게 되고 더 많은 뉴런이 작동하고 연결되어 기억의 흔적은 강화된다.

릭 핸슨과 같은 뇌과학자들이 권하는 느림을 실천하기 딱 좋은 나이가 60대이다.

머릿속은 재빠르게 돌지 않고 시간은 많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바삐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입원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 급하게 먹다 사례에 걸려서 사람 많은 식당에서 연신 잔기침을 해대는 낭패를 겪는 이들에게 유효한 처방이다.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느림의 일상은 통찰력과 주의력을 높여주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켜 준다.

쓸데없이 마음을 급하게 하고 시간을 좀먹는 주범 중의 하나로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뺄 수 없다. 모처럼 책이라도 읽을라치면 알림 소리가 연신 울려댄다. 당장 확인해야 할 과제가 없는데도 읽던 책은 덮어두고 폰을 집어 든다.

동창모임 대화방에서 날씨가 어떻다느니, 어제는 어디를 갔고 뭘 먹었느니 하며 시시콜콜한 일상이 톡으로 날아온다. 읽었으니 한두 마디 답을 해야 할 것 같아 영양가 없는 응답에 이모티콘을 쏜다. 뉴스도 읽고 음악도 듣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날아가고 할 일은 미뤄져서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먹는 일은 또 어떤가. 기껏 상을 차려놓고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거나 손 전화기로 시시콜콜한 정보를 검색하느라 맛도 모르고 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한 접시를 비워버린다. 맛집이라고 찾아가보면 식탁마다 함께 떠들어대면서 급하게 먹느라 본디 하고자 했던 음식에 집중하는 이는 많지 않다.

릭 핸슨의 제안에 따라 일상에서 느림의 수련을 해보려 한다. 우선 3가지를 정하겠다.

1. 남의 말을 끝까지 듣기

해보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 내가 더 말을 잘 할 것 같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려운 만큼 자꾸 할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참기가 쉬워진다.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손놀림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 관찰력과 주의력이 크게 향상된다.

2. 여러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바삐 살 때 요긴했던 멀티태스킹은 이제 그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 집중하고, 책을 읽을 때는 글의 묘미와 따라오는 상상의 세계에 뇌를 맡기자.

3. 스마트폰을 쥐고 다니지 않기!

SNS를 끊을 수 없다면 하루 2-3회 시간을 정해서 확인하면 된다. 즉시 확인 즉시 답변을 해야 할 급한 일은 사실 거의 없다.

한 달간 실천해보고 마음과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눌 생각이다. 여러분도 느림의 실천 목록을 정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 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8-2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낙원상가에서 영남권으로 옮긴 후

초간편 염불전문시스템 하나로 영남권 대·소사찰 석권!

가장 실수없는 선택법 : 초간편 본품으로 법당에서 염불을 해본 후 선택

장기할부 / 카드환영 / A/S를 생명같이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연기는 '공', 실천이 '중도'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⑫ 중도와 팔정도

내 나이 스물아홉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어언 51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색하며 살아왔다네/ 이 길을 떠난 수행자의 삶은 없는 것이네/ 길은 팔정도 진리는 사성제/ 욕망을 다스림에는 법이 최고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이 길 뿐 다른 길은 없네

이 시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전도를 마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읊은 것이다. 우리도 매일의 삶을 팔정도를 생각하면서 되돌아봐야 한다.

팔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부처님과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와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께 45년의 전도를 마무리 짓고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 때 늙은 수행자 수바드라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평소 품고 있던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라쌍수의 숲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아난은 부처님께서 지금 매우 피곤하고 병을 앓고 계시니 번거롭게 해선 안 된다며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수바드라는 큰 소리로 부처님을 만나야겠다고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마라. 내 설법을 듣고자 온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며 열반에 드는 순간에 찾아온 수바드라에게 법을 설했다. 법을 들은 수바드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이 때 부처님께서 수바드라에게 "1천 년 후나 1만 년 후에도 부처되는 방법은 팔정도의 수행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생에서 수행 정진을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갈 때 본전치기 밖에 되지 않는다.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만 지금의 생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집멸도의 사성제에서 실천방법이 바로 팔정도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바른 실천이 팔정도를 이루고 있는 덕목이다.

우리의 삶은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가장 안정되면서 바른 생각에 의해서 매일매일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린 바로 그 길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다.

실천적 중도는 무엇인가

부처님은 중도에 대해 이와 같이 설한다.

"벗들이여, 그대들은 두 극단(고행과 쾌락)을 달려가서는 안 된다. 그 둘이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집착함은 어리석고 추하다.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또한 이로움이 없느니라. 또 스스로 고행을 일삼으면 오직 괴로울 뿐이며 역시 성스럽지 못하며 이로움이 없느니라. 나는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중지와 등각과 열반을 돕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고행과 수행을 해보니 결국 양극단을 버리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설명한 것이다.

인식능력이 맑고 깨끗해져 선정에 들어야 하는데 육신이 고통스럽다면 온갖 잡념만이 일어난다. 산란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극단을 버리라고 한 것이다. 마음 상태를 적정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산란해도 안 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무기력해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극단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림 · 강병호

> "
> **밖으로 향했던 나침반을**
> **자기 자신의 내부로 돌려**
> **내면 인식하기 시작할 때**
> **우리는 진정한 보배창고인**
> **'중도'란 가르침 보게 된다**
> "

사상적 중도란

천태지의가 주장했던 '쌍차쌍조(雙遮雙照)'에서 사상적 중도를 볼 수 있다. 이는 마음이 깨끗하게 해 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태지의는 중국 교종(敎宗)을 확립하는데 정점에 있었던 스님이다. 그는 〈묘법연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을 확립한다. 또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어떤 경전을 어느 시기에 설했을까' 하는 5교8시의 교상판석을 완성한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원교란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막느니라.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추느니라.(心慨明淨 雙遮二邊, 正入中道, 雙照二諦)"

실질적으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쾌락과 고행을 막고 또 바르게 중도에 들어갈 수 있어서 두 법을 다 비춘다. 어떤 쾌락도 어떤 고행도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천태지의는 중도를 '쌍차쌍조' 라고 설명하면서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중도라고 하였다.

선불교에서의 중도

마조의 제자인 대주 혜해는 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가운데도 또한 어찌 있을 것인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고 이름하니 참으로 여래의 길이니라."

이하는 대주 혜해와 마조와의 일화다. 대주 혜해가 처음 마조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 마조가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대주 혜해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하자 마조는 무엇을 구하려고 왔는지 되물었다. "불법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답한 마조는 답답하다는 듯이 대주 혜해를 책망했다.

"너는 어째서 자기 자신의 보배 창고는 살피지도 않고 다른 곳을 찾아 방황하며 다니느냐? 도대체 너를 떠나 무슨 법을 구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대주가 어리둥절해 "'무엇이 이 혜해의 보배 창고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마조는 이 같이 답했다.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배 창고이다. 그것은 일체를 다 갖추었으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작용이 자유자재하니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조의 답에 대주는 더 이상 의심함이 없이 직관으로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 후 6년 동안 마조 곁에서 수행을 한 대주는 돌아가 〈돈오입도요문론〉 1권을 지었다.

밖으로만 향해 있던 나침반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내면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배창고인 '중도'를 보게 된다. 우리의 육신도 현상세계도 내면으로부터 울리는 자기 소리의 인식, 이것을 터득하는 것이 '중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용수가 설명한 중도

용수보살이 설명한 팔불이 중도는 연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팔불이란 불생불멸 · 불상부단 · 불일불이 · 불래불거로서 연기가 곧 공이며, 공의 실천이 중도라 표현한 좋은 명문이다.

"생겨나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으며,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는다." 이것이 용수가 중론에서 표현해 놓은 중도, 연기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용수는 연기의 본성은 무자성이다. 그러므로 연기를 공이라고 하였으며, 공이기 때문에 가명이며, 이것 또한 중도라고 하였다. 위대한 연기에 대한 공의 철학이 성립된다. 대승불교로 체계화되면서 '연기가 곧 공'이라는 내용이 확립된다. 그래서 팔정도가 바로 중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팔정도가 무엇인가?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팔정도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연기, 무아, 무상 또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로서 조금씩 양이 늘어간다.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아주 묘하게 가르친다. 팔정도를 보면 정견 · 정사 · 정어 등 순서에 따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서대로 외워놓으면 실천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좋다.

정견에 대해서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정견(正見)이다. 정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정견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순간 생기는 견해이다. 우리는 정견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견의 의미는 이와 같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여 사성제와 연기법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며 선악을 구별하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을 보는 것이고, 정법을 지키는 것이며 정견을 가지는 것이다.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편타당하고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견이 중요한 것이다. 무아와 무상과 연기가 바로 정견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연기를 이해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함께 일어나는 생각이 정견인 것이다. 사성제는 정견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고 이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견이 생길 때 가장 적절한 처방이 나오게 된다. 정견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 정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여 정견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이뤄진다. 정견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중국 선불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주의 이야기다. 조주는 선불교의 천재이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무"등 지금 알고 있는 화두 중에 조주에게서 나온 것이 많다.

조주가 젊은 시절에 스승인 남전 선사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다. 조주는 유머가 넘치는 젊은이였다. 그 당시 조주 스님의 직책은 부엌에서 불을 때는 화부였다.

하루는 저녁공양을 한다고 불을 떼면서 부엌에 불을 냈다. 연기가 자욱하다가 이내 불길이 솟아오르자 사람들이 "불이야"라고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조주 스님은 부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어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조주는 "부엌 안에 앉아서 바른 말 한마디 일러주면 나갈 테니까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려면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왔고, 조주는 전부 다 아니라고 했다.

보다못한 스승 남전이 "조주야 받아라"면서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쓸모있는 놈이 하나 있구나"라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도 일상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세상에는 행복 밖에 없다. 〈영남대 의대 교수〉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가
온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야

지금은 사리탑 일부만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사리탑을 완성하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신사리를 꺼내야 하기에 친견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다시 사리탑 안에 봉안하면 탑을 부수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인연 있는 분들은 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년 6월 29일(토) ~ 7월 7일(일)
매일 10:00 ~ 13:00

장 소 경기도 연천 오봉사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예약방법
www.gangnambu.org/45 접속 후
사리탑건립불사 메뉴 중 [친견법회예약] 선택

주 의
1. 법회 후 친견하기에 10시까지 입장하셔야 친견할 수 있습니다.
2. 점심공양과 차량운행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532-0012

진신사리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강남불교대학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불교대학(민족통일진신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

원칙과 융통성의 적절한 조화



新 불교사자성어

㉒ 수연불변(隨緣不變)

'수연불변(隨緣不變)' 은 인연에 따르지만, 본질 · 근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에 있는 사자성어로서 앞뒤를 바꾸어 '불변수연(不變隨緣)' 이라고도 한다. 진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인연,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융통성), 대응한다는 뜻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변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초기불교와 〈아함경〉 등에서 진리는 연기(緣起) · 삼법인 · 사성제 등이다. 〈화엄경〉과 〈대승기신론〉 등에서는 '진여(眞如)' 라고 한다. 진여를 다른 말로는 법성 · 불성 · 법신 · 공(空) · 여래장이라고도 하는데, 연기가 곧 공(空)인 것처럼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다.

진리는 불변(不變)이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 인연에 따라(隨緣) 삼라만상이 연출되는 것처럼, 진리도 하나의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

〈금강경〉에는 "고정된 법(진리)은 없다(無有定法). 그것을 이름하여 아뇩다라 삼먁삼보리(올바른 깨달음)"라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고정관념(不變)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면 깨달음이나 해탈을 이룰 수가 없다. 고정관념의 굴레 속에 갇히면 그로부터 고(苦)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괴로움과 고난을 구제해 준다. 또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에는 고난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지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씀이 있다.

때론 국왕의 모습으로, 때론 돈 많은 부자의 모습으로, 때론 미녀의 모습으로, 그 밖에 귀신의 모습 등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지만 관세음보살 자체는 변하는 것이 없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변화신을 나타낼 뿐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 갖가지로 변화한다. 그러나 다시 맞추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와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염불문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불변과 수연은 '원칙과 융통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과 융통성은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국가운영이나 기업운영, 개인의 인생에서도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 없는 것과 같다. 철학이 없으면 목표가 없는 것이고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하면 덩달아 뒷북을 치다가 끝난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너무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면 망한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운영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유명한 필름회사 코닥필름이 문을 닫은 것은 메모리 개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모두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자기가 최고로 옳다는 생각과 자신의 주장에 빠지면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성장이 멈추게 된다. 철학이나 사유세계는 물론 한 인간의 성장과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융통성이 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편의주의,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선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칙은 본질이고 불변이다.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원칙만 고수하면 그것은 곧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이 된다.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칫 무의하게 된다.

불변과 수연, 원칙과 융통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 타인에게는 각박할 정도로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내가 필요할 때엔 융통성을 앞세운다. 너무 원칙을 고수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융통성이 많아서도 안 된다.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불변(不變)과 수연(隨緣), 수연과 불변을 잘 적용할 때 여법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말하지 않는 말'이란 무엇인가?

〈不言言〉



격절록 강설

㉒ 제8칙 노조끽반(魯祖喫飯)

[古則과 着語]

擧, 僧問魯祖 (這面壁漢鈍滯殺人) "如何是不言言" (道什麼) 祖云 "你口在什麼處" (險) 僧云 "某甲無口" (撞着) 祖云 "將什麼喫飯" (第二杓惡水來也) 僧無語 (可惜許 將成九仞之山 不進一簣之土)

어떤 스님이 노조(魯祖, 노조보운)에게 물었다. [이 면벽이나 하는 사람이 사람을 몹시도 멍청하게 만드는군.] "어떤 것이 말하지 않는 말(不言言)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노조가 말했다. "네 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험(險, 위험하다)!]

스님이 말했다. "저는 입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조가 말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밥을 먹는가?" [두 번째 구정물 바가지를 퍼붓고 있다.]

그 스님이 대답이 없었다. [애석하다. 높이가 구인(九仞)이나 되는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好劈脊便棒 (也是遲了也) 這般漢 開口了合不得 合口了開不得" (雪竇却須替這僧喫棒始得).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그때) 등판때기를 후려갈겼어야 했다. [그래도 역시 늦다]. 이런 놈은 입을 열면 닫을 줄 모르고, 입을 닫으면 열 줄 모른다." [설두가 도리어 이 스님을 대신해서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評唱 1]

師云. 魯祖參馬大師 住池州魯祖山. 凡見僧來便面壁 直下省要 只是難搆. 南泉聞云 "我尋常向人道 向佛未出世時承當尚不得一箇半箇 他恁麼驢來去" 一日南泉到來 撫師背一下 師云 "誰" 泉云 "普願" 師云 "如何" 泉云 "也是尋常" 祖云 "得恁麼多口"

노조는 마 대사를 참례하고 지주(池州) 노조산(魯祖山)에 주석했다. 무릇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면벽(面壁)을 해서 (이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했지만, 다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었다. 남전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부처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나 반도 얻지 못한 것이다' 고 했는데, 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귀해가 되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남전이 와서 노조의 등을 한 번 어루만지자, 노조가 말했다.

"누구요?"

남전이 말했다.

"보원(普願)이네."

선사가 말했다. "어떻소?"

남전이 말했다.

"역시 늘 그렇지."

선사가 말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으면서…"

***노조보운(魯祖寶雲): 생몰 연대는 알 수 없다. 마조도일의 법을 잇고, 늘 면벽한 것으로 유명하다.**

***將成九仞之山 不進一簣之土(爲山九仞功虧一簣): 〈서경(書經)〉 '여오편(旅獒篇)'에 나오는 말로 높이가 구인(九仞)이 되는 산을 쌓는 데,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쌓은 공로가 최후의 한 번 실수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됨을 이르는 말.**

***"得恁麼多口(이렇게 말을 많이 했으면서…)"가 조당집 제14권에서는 "汝何多事(너는 어째서 일이 많은가?"로 달리 전한다. 또한 선문염송집 제6권에서는 본칙에 대한 대혜종고의 염으로 소개 하면서 끝부분의 노조의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㉒ 이해의 길 2

'신'이 종교의 본질인가?

중고등학교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다. 그때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막연히 윤리나 철학 정도로 생각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불교에서는 신(神)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 없는 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종교의 본질이 신에 있다는 생각은 오늘에도 여전히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신' 은 서구 종교를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지만, 종교 전체를 아우르는 관념은 아니다. 본래 종교의 영어 표현인 릴리전(Religion)은 '다시(again)' 를 의미하는 're' 와 '결합(take up)' 의 뜻을 지닌 'ligion' 의 합성어다. 이 둘을 연결한 '릴리전' 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신과 이별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신과 인간이 다시 결합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그리스도가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했으며, 그것이 곧 서구 중세 사회에서 이해한 릴리전의 전형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에게 종교는 기독(基督,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의 전부였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로 마치는 이유도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주장한 이들이 이단으로 몰려 종교재판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신의 종교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자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지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절대 타자인 신에 의존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신앙이 지금까지 줄곧 말해왔던 타력종교(他力宗敎)다.

릴리전의 기준에 따르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종교 역시 신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만남' 이 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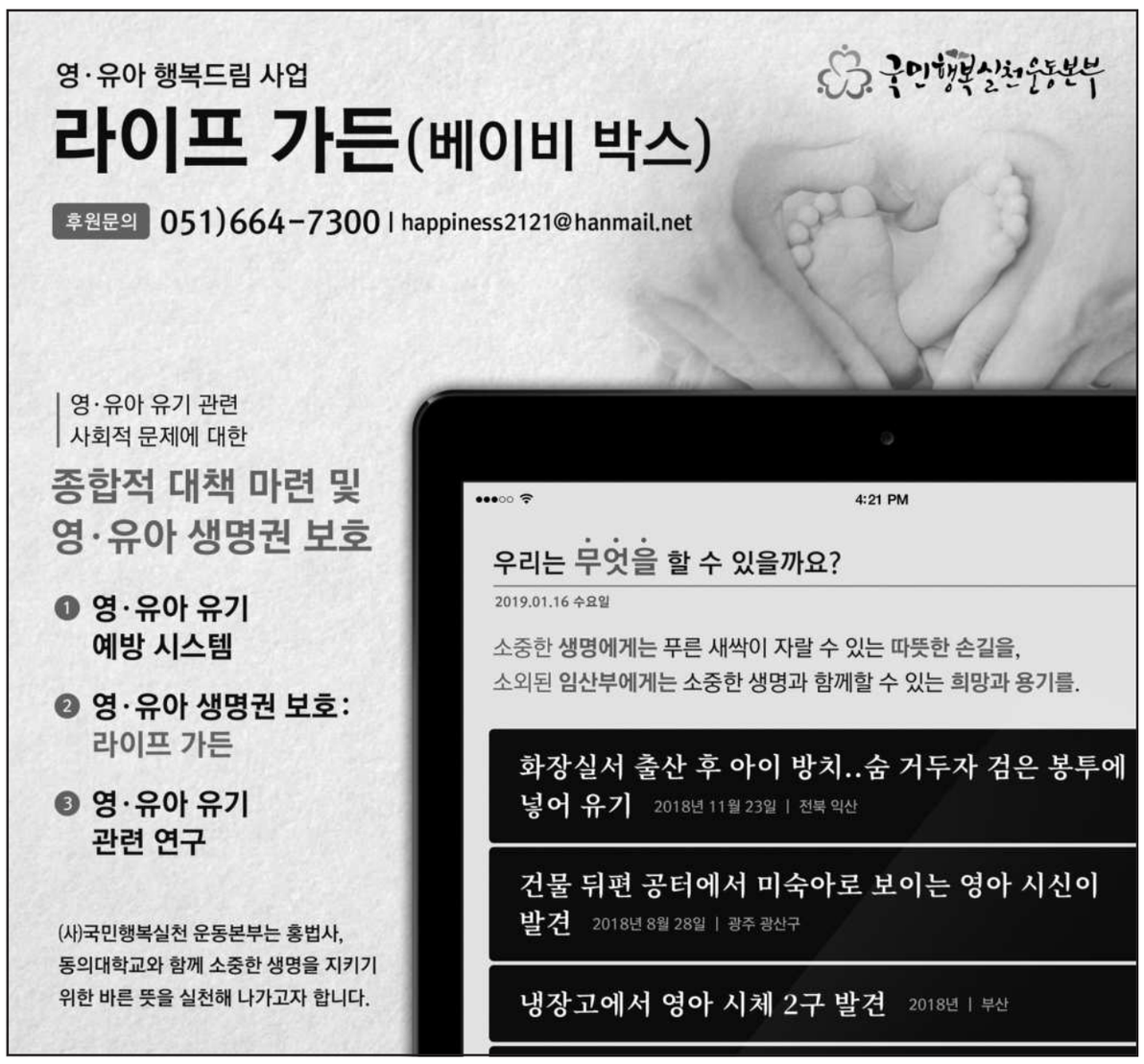
서구의 종교학자들이 동양의 종교와 만나면서 느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를 정의하면 동양의 종교를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신과 인간의 만남' 이라는 기존의 종교 정의를 폐기한 것이다. 벌써 2백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폐기처분된 관념에 얽매여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판을 짜야만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들은 '성(聖)' 과 '속(俗)' 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속' 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성' 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여, 종교는 유한한(俗)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聖) 삶을 추구하는 신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각각의 종교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종교는 이제 '거룩함' 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만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서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창조주로서 신의 관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성스러움은 신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신' 이라는 절대 타자를 배제한 채 종교를 거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기독교 안에 신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전통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종교학자들이 자신의 전통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양의 종교를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의 행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그들은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예의를 아는 기독교인이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 · 동환 스님 지정

원행 스님 "종단의례 발전에 힘써달라"

어산어장을 보좌하며 염불원 활성화와 어산 보존 및 전승의 역할을 맡는 조계종 어산종장에 화암 스님<사진 왼쪽>과 동환 스님<사진 오른쪽>이 지정됐다. 이로써 어산종장은 지난 2월 지정된 법안 · 정오 · 동희 스님을 포함해 5명이 됐다.

화암 스님은 1971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연수국장과 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조계종 표준 우리말 의례 등을 녹음 · 시연했다. 김영삼 前대통령 영결식 당시 집전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염불의례교육 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환 스님은 1987년 월탄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범패를 이수했으며, 진관사 수륙재학교서 영산 · 수륙재 · 짓소리를 수료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와 진관사 수륙재학교 강사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순국선열 애국정신에 감사"

광주 신광사 호국영령 추모재 봉행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는 지난 6월 18일 광주지방보훈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제18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천도재'를 봉행했다. 1부 기념식과 2부 추모의식이 진행된 행사에는 신광사 회주 경주 스님, 주지 동현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을 비롯해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미망인 30여 명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동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야말로 전쟁이 없고 우리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하유성 청장도 인사말에서 "우리민족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 굳건히 나라를 지킨 것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 덕분이다. 이를 추모하는 것은 후손의 당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범식 신도회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보훈가족들이 선대의 업적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상담 필수요소"

Interview

개관 10주년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장 희유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년간 어르신 3만3000명 상담
예방교육 ·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성 낮춰
6월 27일 10주년 기념 세미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바로 진정한 상담가입니다. 그 가르침을 본받아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어르신과 노년기 다양한 관계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센터장 희유 스님은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이같이 짧게 평가했다.

상담센터는 내방상담을 비롯한 24시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3만3000여 명의 어르신들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 또한 예방교육, 찾아가는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낮췄다. 아울러 노인복지현장 실무자들과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며, 주제 · 대상 · 방식을 다양화한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는 의사소통 기술 함양 및 성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 일상의 행복을 찾도록 돕는 '행복시소(행복하고 시원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함께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는 '화해하기'와 생과 사의 이해를 도와 삶을 성찰하는 '사는기쁨' 등은 상담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의 상담을 돕는 전문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머지않았고, 국가는 커뮤니티케어를 주요시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생활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상담전문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우울, 자살위기, 분노, 치매, 학대 등 노년생활의 다양한 위험들은 지속적이면서도 세심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담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커뮤니티케어시대, 상담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10년간의 노인전문상담에서 얻은 상담센터의 성과를 공유하고, 노인복지상담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시대, 왜 지금 노인복지상담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주제 발표에서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영등포구노인상담센터에서 각 기관별 실천경험 및 상담교육 현황 등을 설명한다.

"10년간의 실천경험을 발판으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노년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적,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해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 취임

6월 19일 교내 대승원서
장학금 1000만원도 기탁

조계종 제19교구본사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이 불교종립 정광학원 제1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불교종립학교인 정광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광학원은 6월 19일 교내 법당인 대승원에서 덕문 스님, 동현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대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해중 스님(이사),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을 비롯해 김형수 정광중고교 동문회장, 이민수 광주불교방송사장, 교직원 등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14대 이사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덕문 스님은 화엄사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사미계, 199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제13~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이사와 화엄사 주지로 재직 중이다.



덕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정광학원은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며 멘토에 대해 "스승이나 지도자가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으로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정신을 갖고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으로 공부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학교 운영을 학교장 자율에 맡겨왔던 기존 관행과는 다르게 법인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덕문 스님은 장학금 1000만원을 정광중 · 고등학교에 전달했다.

동현 스님은 축사에서 "정광학원은 만암 스님을 비롯해 호남의 사부대중이 만든 지역 사학명문으로 호남 인재양성에 앞장서 온 도량"이라며 "덕문 스님의 덕망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 것을 기원하며 광주지역 불자들이 정성을 다해 기원하고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광주유일의 종립학교로 만암 스님이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와 함께 지난 1946년 개교했다. 현재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광주광산구 지역 사학명문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19자선골프대회 성료

직할교구신도회 6월 19일 양평TPC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는 6월 19일 양평TPC골프클럽에서 2019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조계종 성역화 불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도 쾌척해 대회 취지를 드높였다.

이금석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불자 네트워크와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보디야나 석가모니불 점안

부산 보디야나선원, 6월 16일 봉행



부산 보디야나선원(선원장 혜안)은 6월 16일 석가모니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보디야나 석가모니불은 석조 좌상으로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120호) 석장이 조성했다. 상호는 아잔타 석굴의 열반상, 몸체는 결가부좌한 자세이며 수인은 선정인(禪定印)으로 제작됐다. 석재는 화강암 경주석이며 복장은 부처님의 진신시라 7과와 발원문이 담겼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禪지도자 양성교육

순천 선암사서 2박3일간… 42명 참가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회장 인성)는 6월 10~12일 순천 선암사에서 '제3회 선(禪)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비구 20명, 비구니 22명 등 42명의 스님이 참가했다. 중앙승가강원장 탄해 스님은 "매일 잠시라도 스스로를 관조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수행의지가 바로 선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50호 | A13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최 면(역 학)

- 최면개인지도(속성, 개인, 그룹)
- 최면심리치료상담
- 역학(명리)개인지도(속성책임지도)
- 전생체험, 퇴마

부산법향선원

010-7595-436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사주명리,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 (5개월) 기문둔갑 : 150만원
사주명리 : 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뭐든지 다 되는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빙의 (100% 천도함)

❶ 몸에 들어온 영가 확실하게 천도함 : 심장두근, 가위눌림, 악몽, 불면증, 뼈마디 쑤시고 팔다리가 붓는 분, 머리가 항상 아프고 눕기를 좋아하는 분,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안나오는 분 100% 고침.

❷ 스님, 일반분 누구나 고침 ❸ 1가지 소원도 확실하게 이루어 드림

14일 내 차도가 없을시 환불해드립니다.

서울 청광사 02)952-1477, 010-9471-1247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수강료 : 360만원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종)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지역 종무원장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경남종무원 - 창원
010-9422-1233	010-4582-3366

소小 평平 원院

소 소중한 인연들의 평 평안과 치유를 원 기원하는 곳



소암 김지엽

사주명리
신점신병 전문
자녀문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1길 6-9

010-8007-1680 / 010-4254-82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경북 포항

010-4448-37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대중불사 인연을 모십니다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804번지
- 토복건축허가 득하였으나 건축자금 8천만원이 부족하여 지면으로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천일종 청룡암 | 주지 도광
농협 351-0678-9831-53 한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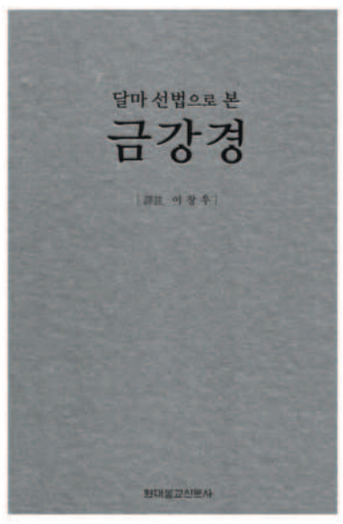
010-2385-3789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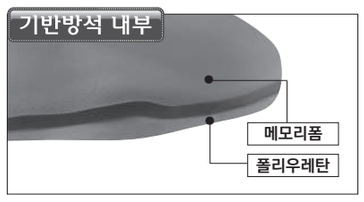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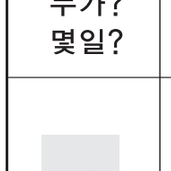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3, 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50호 | A14 | 전면광고

입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몸으로 계를 범하지 않으면
능히 도를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토굴매매

● 멀고 먼 도심에서 벗어난 푸른 청정 하늘 밑 솔숲 아래 양지 바르게 앉은 촌집, 법당 옛아궁이 방 300여평의 공간에 조용한 수행처로 소개해드립니다.
● 위치 : 경북 영주와 안동 근처
● 대지 : 300여평
● 가액 : 9천 9백만원

010-9546-3363

임야안내

● 위치 :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임야 14,600평 정도
● 가액 : 1억 1천만원
● 사정 상 급매

010-8666-6210

암자(전/월세)구함

● 위치 : 경남 및 부산 암자 구합니다.
● 보증금 1천만
● 월세 10 ~ 20만
● 포교당은 사양합니다.

010-3288-9406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35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 공양간, 방1개, 7평목조단청
● 화장실(남,여), 목조단청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6억 5천

◎ 위치 : 충남
◎ 부지 : 900평
◎ 건평 : 50평
◎ 산및사찰,교통편리,여건좋음
◎ 매가 : 3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급)사찰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50평. 법당 20평 목조
● 관음전, 종각, 공양간, 차실, 요사채
● 방이 총 9개. 창고. 외부 화장실.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총 2억 9천만원

010-4628-5699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 30년 운영
● 평수 : 3층 건물 중 3층. 약 45평
● 임대 : 사찰시설 전체 최저렴 임대
● 조건 : 보증금 1000만 / 월 35만. 비구니 유리
● 이유 : 불사완공. 연령노후 50년 경영

010-9322-4438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도로 공사 중

010-9647-072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3층 건물 2층. 4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소불 108불 ● 방 2칸. 공양간. 실내 화장실 2칸. 냉난방 시설 완비
● 시장 가깝고 지하철 도보 5분 거리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5만원
● 시설비 1800만원
● 큰 절 소임 관계로 급 양도함

010-3152-273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 50년된 암자, 재래시장, 정류장
● 도보로 10분 거리
● 법당,요사채, 산신각, 화장실 (총 366평)
● 종교용지 210평, 임야 156평
● 테크노폴리스(과학단지)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536-6333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 도로변
● 거창에서 6분거리. 정남향. 집뒤 북쪽 소나무산
● 총면적 1134평. 목장용지(384평)-우사 200여평
● 신축가능.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 암반우물 1개, 자연우물 1개, 소나무정원
● 양도가 : 3억 95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망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3억 5천만원
● 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010-3269-1023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2분거리
● 인법당 45평, 산신각 3평(풍광좋음)
● 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있음
● 평지에 주차공간 넉넉
● 인연있는 스님께 양도 원함
● 전월세도 가능(시설비 일체 없음)

010-3574-3303
010-7121-303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2140번지(도로명:남양길 200)
● 대지2건. 총 약 460평
● 하천부지,공지 약80평 사용중
● 건평 50평 중 20평 신축중
● 관음보살님과 약사의약수 신통영험의 도량
● 금액 : 3억 8천 5백만원(가격절충 가능)

054-371-2229
010-6781-789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 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 좋음
●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 있음
● 북천 코스모스 축제 하는 곳
● 가액 : 1억 7500만원
● 대출 : 2500만원 안고 1억 5천만원

010-5325-3068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3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전원주택/임법당

● 위치 : 경남 합천군 쌍백면 소재 쌍백초교 바로 뒤
● 대지 : 135평
● 건물 : 35평(모두 수리함)
● 모든 비품 드립니다.
● 가액 : 9천 8백만

010-8585-0961
010-3549-096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진주와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 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 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 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언제든 양도 가능
● 가액 : 2억(상담가능)

010-2607-7114

日本포교당(급)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와 조선 이찌방 사이. 재래시장 입구. 대각사 포교당
● 무속인, 신명제자, 법사 운행하는 자리로써 위치 최고 좋음.
● 한국사찰 운영 관계로 급히 안내합니다.
● 비품대 500만엔, 월세 10만엔(가격절충)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80-5358-5060
070-8836-5060

사찰안내

● 위치 : 전주 중심지 한옥마을 인근
● 이성계 태조대왕 천년 영험 기도터
● 법당. 요사채. 극락전(최근2년신축)
● 토지 : 총 약 500평. 국유지 1만평 무상 사용
● 천년기도 용궁 약수터. 대나무 숲 울창 편백나무 3천그루(풍수명당 길지)
● 석불 1억 5천만원 설치함
● 가액 : 6억(2억포함). 전세 2억 가능함
● 계약 시 2억 받고 등기이전 해드림 잔금 2억(3년 간 불사하셔서 분할 납부)
● 땅값만 받고 급매(5층 신축 가능 토지)

010-9647-0723

포교당급매

● 위치 : 부산 기장 역세권 시장 3분. 역사 2분 거리
● 3층 건물. 2층 80평. 3층 주택 50평
● 삼존불 지장독불 시설 완벽 옥상 사용 가능
● 가액 : 2층 보증금 2천/월 60만. 3층 보증금 1천/월 50만
● 2층만 하여도 됨
● 기장에 이보다 싼 건물 없음

010-6520-5859

포교원임대

● 위치 : 경산 갓바위로 올라가는 길
● 2층 건물 중 1층 전체. 40평
● 도로 인접. 신행상담 및 사주 최고 요지
● 시설 및 보증금 모두 1000만 / 월 15만
● 몸만 오시면 되는 곳입니다.

010-3549-2270

사찰(급매)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동암전철 5분(만수소방서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 1층. 자상 3층. 건평 120평
● 건물 : 지하 1층 - 창고형 / 1층 - 공양간(큰방 2개, 대형주방, 화장실) / 2층 - 방 3개. 화장실 /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대형탱화
● 옥상 : 소각장 설치. 다용도로 사용(남향건물)
● APT 및 단독주택 지역. 인근 대형마트 ● 답사하실 분만 연락요망(사찰연력 40여년)
● 가액 : 3억 8천(인연있는 분 절충가능)

010-8360-8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 약 100평
● 법당. 아미타 삼존불. 신중32 후불 미타. 관음. 지장108불
● 요사채 방 5개. 화장실(내외) 2개 다용도실(창고) 2개
● 가액 : 1억 5천. 현 성업 중
● 절충가능

010-9146-3568

암자(토굴)매매

● 위치 : 경북도청 새청사에서 6km
● 대지 : 약 70평(문중 땅으로 영구임대)
● 구조 : 방3. 주방1. 화장실2 (태양열 온수)
● 대지사용료 : 연간 20만원 텃밭있음
● 가액 : 1천 5백만원(분할가능)

010-8650-9202

토굴매매

● 위치 : 경남 함양군
● 대지 : 300평
● 황토방1. 부엌1. 전기 농사용. 수도 자연수
● 가액 : 3200만원

010-4504-656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토굴(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미양
● 방향 : 남서 간방
● 건물 : 요사채 1동 법당 1동
● 대지 : 184평
● 가액 : 1억 5천

010-9859-3680

사찰/포교원안내

사찰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54-1
● 건평 : 약 70평
● 건물1 : 방3. 욕실2. 다용도실
● 건물2 : 황토방1. 욕실1 주방. 거실. 다용도실
● 건물3 : 법당. 원룸1
● 전 : 약 200평. 5필지
● 주차 약 10대 가능
● 가액 : 19억

포교원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93-1 A동
● 4층 건물. 근린상가
● 건평 : 약 270평
● 주차 약 9대 가능
● 대지 : 약 108평
● 가액 : 29억

010-2325-1014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 중앙에 위치
● 고려 석불 문화재 자료 1점
● 이조 때 불상, 목불. 바로 문화재 됨
● 부지 : 224평
● 가액 : 6억 3천만원
● 직접 거래

010-3080-9393

포교원급매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시장 부근
● 2층 남향. 20평
● 건물주가 협조함
● 보 200만원 / 월 50만원 부가세 없음
● 건물주 전화번호임

010-5381-1419

암자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대안동
● 총면적 3900평
● 법당 13평, 삼존불
● 주변산세 수려함
● 보증금 3천 / 월 50만원

010-6782-6460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민 희생’ 기린 북미순례 대장정

美불교계 메사추세츠 순례… 2020년까지 유럽서도

박정현 객원기자

1492년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부터 약 200년간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이른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약 150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며 죽어갔다.

이 같은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미국 불교계가 메사추세츠주(州)에서 평화 순례길에 나섰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는 6월 14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 불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5월 31일~6월 22일 주 전역을 순례했다”며 “유럽의 식민지화에 따른 미국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1917년 설립된 일본불교 종파인 니포잔 묘호지(日本山 妙法寺)가 주관한 이번 순례단은 메인(Maine) · 코네티컷(Connecticut) ·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등 1916~1919년 원주민들의 ‘위대한 희생(The Great Dying)’이 있던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순례를 하며 식민지화의 암울한 역사를 배우는 시간도 보냈다.

한 순례단원은 “함께 걷는 동안 아픈 역사를 직면하고 성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왐파노아그(Wampanoag) 원주민 부족인 또 다른 순례단원은 “불교계의 이 같은 활동은 많은 원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순례

日불교 ‘니포잔 묘호지’ 주관
‘위대한 희생’ 지역 차례 방문
사원 · 불교커뮤니티 등도 설립
“원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하는 동안 호흡 명상을 하고, 신성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 되는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이에 더해 니포잔 묘호지는 모히칸(Mohican) 원주민 부족 조상들의 땅에 사원, 불교 커뮤니티 센터, 평화탑 등도 세웠다. 니포잔 묘호지 관계자 린다 에드워즈(Lynda Edwards)는 이달 초 베삭 행사에서 “한 원주민 운동가가 원주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평화탑 조성을 위해 1984년 우리에게 해당 부지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메사추세츠 불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5월 31일~6월 22일 주 전역을 순례했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니포잔 묘호지는 1985년 해당 탑을 완공해 뉴잉글랜드평화탑(New England Peace Pagoda)이라고 명명했다. 해당 탑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2011년 문을 연 인근 사원에서는 매일 불교 기도 및 의식, 종교 교류 행사를 비롯해 원주민을 위한 기도 행사를 열기도 한다. 현재 니포잔 묘호지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 샌프란시스코 · 뉴욕과 캐나다 매니토바 등에 이어 테네시(Tennessee)주에 6번째 평화탑을 조성 중이다. 한편 니포잔 묘호지는 원주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순례 행사를 북미 · 유럽 등에서 2020년까지 진행한다.

페퀏-왐파노아그(Pequot-Wampanoag) 원주민 부족의 원로이자 역사가인 톨 오크(Tall Oak)에 따르면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 대륙에서 계획된 2020년 기념행사는 분명히 ‘자축’의 자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원주민들의 땅에 이주한 사회의 깊은 자기성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가르침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평화의 울림 30년, 이대로 멈추나

日 오츠시, 열사병 방지 이유로 평화타종 중단

시장명의 공문 불교회에 발송
시 불교회 “독자적 행사 추진”

2차 대전이후, 다시는 평화를 잊지 말자는 활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30년째 봉행해오던 ‘평화의 타종식’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돌연 중지됐다. 이 황당한 뉴스를 6월 15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간사이 지방의 도시 오츠(大津)시는 지난 1987년 ‘항구평화도시선언’을 시의회가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1989년부터 시내에 소재한 약 260여개 사찰에서, 매년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정오에 맞춰 일제히 평화의 타종식을 봉행해왔다. 타종식을 봉행하는 사찰들을 번갈아가며 매년 시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함께 개최했다.

지난해의 타종식은 천년고찰로 우명한 쇼겐지(生源寺)에서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무더위경보로 개최 전날 급하게 취소됐다. 그 후 가을 무렵 시 내부 회의에서 “계속되는 무더위경보로 열사병 환자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2019년부터는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 오츠시 불교회에 지난 1월에 통지했다. 이후 시장명의의 공문이 협회에 발송됐다. 시에서는 타종식을 대신한 평화사업으로 전쟁경험자의 강연회 등을 가을에 계획하고 있다.


2017년 봉행된 평화의 타종식에서 불교계 대표와 오츠시장이 함께 타종하고 있다.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불교회 측은 “중지결정이 일방적이다”고 항의, 5월에 총회를 열어 오츠시 불교회 독자적으로 평화의 타종식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또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불교회 명의로 시에 제출했다.

불교회장 마에자카 료켄 스님은 “기념식과 타종식은 평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다. 전체 행사는 3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시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스님은 “정말 열사병이 우려된다면, 기념식의 시간을 옮기는 등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가 타종식을 중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국가 M/V에 불교 장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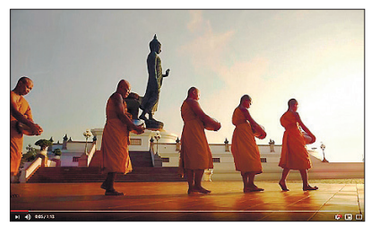
“승려 모습 보이지 않는다” 불교계 항의 수용

태국 정부가 국가(國歌) 뮤직비디오를 새로 제작해 보급했다. “국가의 상징인 불교와 승려의 모습이 빠졌다”는 불교계 항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6월 18일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총리실은 지난달 공개된 기존 국가 뮤직비디오에 불상, 탁발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추가했다. “가장 첫 장면에 배치해 불교계의 항의 소지를 아예 없었다”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또 마지막 장면에는 지난달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대관식 모습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태국 불교계가 단체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태국 불교계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국가 · 종교 · 왕실의 모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뮤직비디오가 인구의 약 5%에 미치는 무슬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여러 종교인이 함께 모여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태국 ‘국교’와 다름없는 불교


태국 정부가 불교계 항의를 수용해 새로 제작한 뮤직비디오 첫 장면.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승려의 모습이 없다. 대신 이슬람교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뮤직비디오 제작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조사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 같은 항의가 제기되자마자 태국 총리실은 불교 장면의 추가 촬영을 즉시 실시했다. 당시 총리실은 “불교계 항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국왕이 모든 종교의 융합과 태국 사회의 평화를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다. 이로 인한 종교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 ‘대영제국메달’ 받는다


불교포교를 공로로 대영제국메달을 수훈하는 게쎄 따시체링 스님.
사진출처=쎄라메 사원 공식 페이스북

영국왕실과 정부가 영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대영제국메달(British Empire Medal)’을 티베트 스님이 받게 됐다. 메달 수여 사유가 불교 포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6월 13일 이 놀라운 소식을 ‘티베탄 저널’, ‘파율’ 등의 외신이 대서특필했다.

대영제국메달은 1917년 영국정부가 제정한 대영제국훈장의 일부로, 영국사회에 공훈을 세운 민간과 군인에게 수여되는 공로훈장이다. 영국정부는 지난 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을 맞이해 수여되는 대영제국메달 수훈자 중에 망명티베트인 승려인 게 따시체링(Geshe Tashi Tsering)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따시 스님이 “영국 내에 불교철학과 문화를 전파한 공로를 인정해 민간부문에서 메달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메달은 영국왕실이 인정하는 훈장으로, 스님은 공식 서명에 수훈자를 뜻하는 ‘BEM’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영국사회에서 영예로운 인사로 대우받게 된다.

따시 스님은 1958년 티베트 푸랑

망명티베트 승려 따시 스님
불교 포교활동 공로 인정돼
1994년부터 런던에서 활동
잠양 불교센터 운영에 박차
강의 내용 6권 책으로 출간

(Purang)에서 태어나 이듬해 가족과 함께 인도로 망명, 13세에 남인도의 총림인 쎄라메 사원으로 출가했다. 1990년 티베트불교의 최고학위인 게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부터 런던의 잠양 불교센터(Jamyang Buddhist Center)에 상주하며 불교를 가르쳤다.

영국에서 스님은 불교사상의 기초에 대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강의 내용을 6권의 시리즈로 출간했다. 또 해당내용을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노력해왔다. 한편 서양의 현대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2017년엔 런던대학에서 ‘마음챙김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열성적인 포교활동과 학문적 성취를 인정, 달라이라마는 지난해 3월 따시 스님을 출가본사인 쎄라메 사원의 91대 방장으로 임명했다.

쎄라메 사원 측은 14일 공식성명을 통해 “방장이신 게 따시체링 스님이 불교를 포교한 공로로 대영제국메달을 받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홍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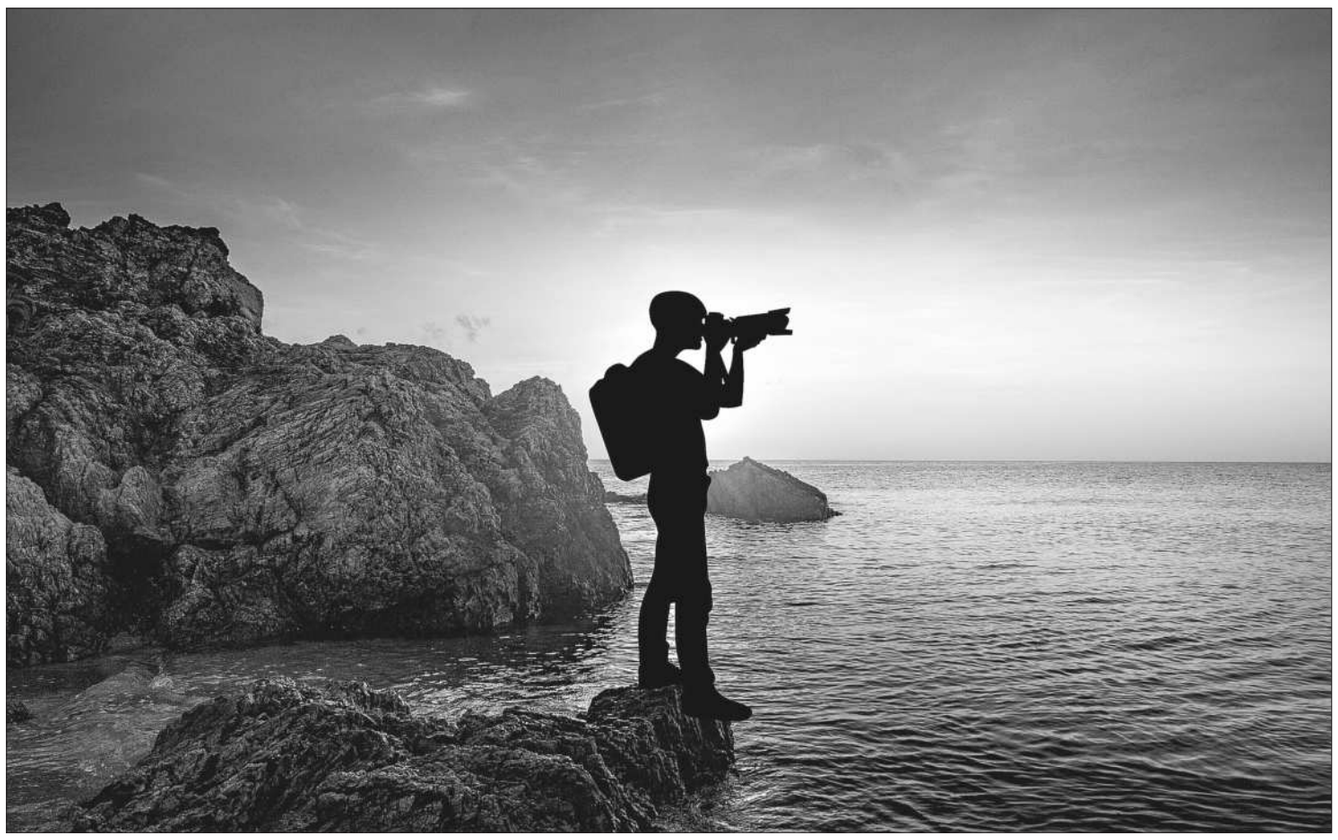


‘자연서 사람으로’ 신체감각 이동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⑫ 내 몸 만나는 갚진 기회



내 몸과의 대화

절벽 끝에서 까마득한 지상을 내려다본 적이 있다. 한 걸음만 내딛으면 허공이었다. 뛰어내리고픈 충동과 물러서라는 내면의 외침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뛰어내려! 괜찮아. 잠깐이야. 안돼! 서! 가까스로 안전지대로 물러섰을 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사타구니가 찢기는 듯한 통증이 일었다. 하체가 걷잡을 수없이 후들거렸다.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다.

6살적 여름, 도시공원에 혼자 놀러간 기억이었다. 후박나무 잎사귀가 무성했고,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는 곳을 지나면 무성한 나무 숲 아래, 돌탑 하나가 킹콩처럼 서 있었다. 그 탑 전면에는 벽채만한 청동판이 있었는데 태극기와 총칼을 세운 군인들이 그 속에서 성난 얼굴을 하며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쇳덩어리 그림을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다. 그러려면, 내 키보다 높고 칼처럼 뾰족한 철망을 넘어가야 했다. 한참동안 버둥거린 끝에 나는 그 철망 담장 위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안쪽으로 몸을 날리면 드디어 거대한 청동 군인들을 만져볼 수 있게 될 터였다. 나는 뾰족 담장 안쪽으로 펄쩍 뛰었다. 그 순간, 뭔가 내 발목 부위를 잡아챘다. 나는 바지 끝자락이 철망에 걸려 있던 것을 몰랐다.

뾰족 철망담장에 거꾸로 매달린 꼬맹이의 울부짖음을 듣고 장기 두던 노인들이 달려왔다. 철망은 내 사타구니 살을 깊게 파고 들었다. 살은 길게 찢겼다. 나는 울면서 어기적어기적 집으로 향했다. 바지는 철망에 찢긴 상처로 인해 붉게 물들었다. 내 몸, 지네 같은 흉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에서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사 위험을 암시하는 실낱같은 단서만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되고,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고 했다. 그날 절벽 끝에서 기억회로를 치고 올라온 나의 유년기 기억은 그런 원리였을까. 몸은 뇌와 연관되어 이런저런 기억이나 생각들을 받아 연결해주는 것일까. 아니다. 데셀 반 데어 콜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게 있다. 내 몸 어느 한 부위에게 직접 묻고 답하다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는 사실상 두뇌 그 자체임을 당신은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

통증이 일거나, 관심이 가는 몸 부위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과 대화글 쓰기. 가령, 무릎 통증이 심하면 무릎과 나의 대화를 쓴다.

간이나 허파, 위장 등, 몸 속 기관 중 어느 하나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과의 대화를 끝없이 적어가 본다. 심장과 나의 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적어보거나 지금 두통이 심하다면, 머리 부위와 나의 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적어본다.

마음이 빠져나가 시신이 된 내 몸과의 대화. “너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살았지?”로 시작하는 질문 주고받기.

몸과 주고받는 진실한 대화
상상도 못한 내면 마주한다
외부조건 만나는 최초 감각
감정을 뺀 감각만 살펴보자

몸과의 대화는 동어반복이 허용된다.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은가.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내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다그쳐 묻기도 하는 법이다. 질문을 할 때는 유순한 감정보다는 신경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쏴붙여보라. 내 몸과의 대화가 주는 이점은 일단, 육탄전 벌어질 일이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거칠어져도 적정선에서 이성적인 대화로 돌아서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를 그치지 않겠다는 마음만 놓지 않으면, 내 몸과의 대화는 이어진다. 그러면서 당신은 몸의 상처가 됐든 장기의 속내가 됐든, 동굴 속 같은 내면 의식을 만날 수 있다.

나 : 야, 척추 4, 5번! 너 자꾸 이렇게 무겁고, 결리고, 쑤시면서 태업할 거야?

척추 :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내가 아픈 게 지금 누구 탓인데 그 따위 말을 하고 그래!

나 : 네가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제 구실을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

척추 :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네가 나를 얼마나 험하게 써먹었는지 기억 못해?

나 : 뭐? 내가 누구처럼 공사판에서 벽돌지고 몇 십 층을 오르내린 것도 아닌데? 고작해야 게임한다고 좀 앉아 있는 게 전부였다고!

척추 : 흠, 제 입으로 다 말하는군.

몸과의 대화는 일단 쓰기 시작하면 바퀴 굴러가듯 쓰게 된다. 한 마음이 두 상태를 내려다보며 쓰는 즐거움이 곧 탄력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질문을 하면, 몸이 답하는 형식이지만, 그 몸이 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당신은 질문하는 사람이면서 질문 받는 몸이기도 하다. 질문하는 몸이면서 질문 받는 당신이기도 하다. 이 게임은 당신의 내면을 향해 마차타고 짓치고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해준다. 당신이 만약 이 시나리오를 끝까지 적어보자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당신은 상상하지도 못한 내면 스토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부위별 감각 알아차리기

이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랑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코끝을 스치면, 코끝에 바람의 감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반응하는 일.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눈, 귀, 코, 입, 피부가 어떤 냄새나 맛, 물건 따위와 접촉했을 때, 맨 먼저 반응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냄새가 코를 스치면 코가 반응하고, 맛이 혀를 스치면 혀가 반응하고, 바람이 피부를 스치면 피부가 반응한다. 이것이 자연의 일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일이 사람의 일로 이동하는 최초 지점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가령, 바람이 당신 코끝을 스쳤지만 바람이 코끝에 닿는 감각을 포착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바람이라는 사건은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있다. 뭔가 코끝을 스쳤는데, 문득 기분이 우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바람이라는 진실을 건너뛴 그 무엇이 당신의 의식을 살짝 바꿀 수 있다.

‘코끝이 차갑다’ 와 ‘기분이 우울하다’ 의 차이. 같은 바람이 코를 스쳤는데, 누군가는 ‘차갑다’ 고 하고 누군가는 ‘우울하다’ 고 한다. 무엇이 사실에 가까울까. 가령, 누군가 당신의 뺨을 때렸다고 치자. 뺨을 맞은 당신은 화를 벌컥 낸다. 그런데 2천 년 전 예수라는 청년은 뺨을 맞자 ‘따가움, 뜨거움, 욱신거림, 찌름’ 등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 감각이 사라진 후 다른 쪽 뺨을 대면서 “때리라”고 했다면, 어느 쪽이 더 사실에 입각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

‘차가움, 따가움, 찌름, 간지러움, 단단함, 가벼움, 욱신거림….’ ‘우울함, 편안함, 달콤함, 서러움, 어지러움, 기쁨….’

당신은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윗줄은 뭔가 몸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직관적 느낌이다. 소위, 육체적 느낌이다. 그 아랫줄은? 그렇다. 육체적 느낌을 거쳐서 몇 단계 더 진행된 해석적 표현이다. 몸 세포 여러 기억들과 물리화학적 합성과정을 거치면서 순식간에 조작된 정서 표현이다. 그런 정서를 자신의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해석이나 조작되지 않은 순수 몸 감각을 알아차리는 일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 외부조건과 만나는 최초의 감각을 놓쳤을 때, 당신의 삶은 허공에 뜬 풍선 같은 감정을 쫓아다니게 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한다. 몸 감각을 아는 것은 원재료가 무엇이고 그 맛과 영양이 어떤지 낱낱이 알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살짝 눈을 감고, 자신의 몸 어느 부위든 마음의 눈으로 주시하라. 그런 후, 그 부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육체적 느낌들을 적어보라. 미세한 느낌에 주목하라. 찌름, 뜨거움, 욱신거림 등 몸이라는 순수 자연과 공기 등 외부 자연이 만나는 첫 감각에 주목하라.

머리 부위 혹은, 어깨, 팔, 다리, 배, 등 부위 등에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적어보라. 정서적 표현은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라.

평소 시간이 나는 대로 몸 감각을 백지에 적어보는 습관을 가질 것. 특히 피부 감각은 눈, 귀, 코, 혀의 감각을 수렴하여 남아 있기 때문에 감각관찰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된다.

5년 전, 대기업 직원들과 이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어느 20대 중반 신입사원이 “이런 낙서 놀이를 하다 보니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게 뭔지, 이제야 감이 잡힌다”고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처럼 진지하게 자신의 몸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그의 흰 얼굴에 살짝 울음기가 번졌다가 사라진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몸의 어느 한정된 부위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찬찬히 감각을 지켜보는 일. 그런 시공간에 고즈넉이 놓여 있는 한 청년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

나는 하릴없을 때 주로 감각 받아쓰기를 한다. 내 몸 곳곳에서 생멸하는 미세 감각들을 글로 드러내보는 것이다. 이해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준다. 내 마음이 내 몸에 와 있는 상태가 고요함이고 곧 행복임을 확인하는 기분이 든다. ‘바로 이 순간’ 이라는 개념도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성립한다. 이것이 실은 본격 명상이다. 눈을 감고 몸 감각을 알아차리는 일이 본격 명상이라면, 글쓰기명상은 눈 뜨고 몸 감각을 받아 적는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다. 당신도 백지를 꺼내거나 모바일 폰 노트 앱을 열어서 이처럼 명상 놀이를 즐겨보라.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마음의 초점을 몸의 한 부위에 고정시켜서, 그 몸이 말하는 언어를 받아 적어보라. 이왕이면 보다 더 미세한 감각을 적으려고 의도해보라. 당신의 별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정수리 - 따가움, 욱신거림, 쑤심
목 - 결림, 우두둑함, 쑤심, 당김
팔 - 따가움, 단단함, 굼실거림,
배 - 괭창감, 수축감, 사르륵거림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제9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9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 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나, 이번 반야학술상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시상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반야학술상 선정 기준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1,000만원 지원**
추천 및 응모 마감일자 및 방법	• 2019년 **7월 15일까지**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 | **www.banyaresearch.org**
시상일 및 장소	추후 공지
문의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에 한마음마저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불(佛)은 뭐냐. 불바퀴는 왜 불바퀴라고 그랬느냐. 그냥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불바퀴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걸 불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본래 자성불은 있는 건데, 자기 자성불에서 모든 거를, 나고 드는 것이 전부 그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성불은 믿지 않고 저기 계신 딴 부처님을 믿고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데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아니야. 공덕이라는 건 무엇 때문에 공덕인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아닌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 되겠나. 일체제불과 일체 보살, 역대 조사가, 역대 중생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은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한마음을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법신으로 화하시고 그래서 남이 응해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 한마음이 돼 주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큰 호랑이가, 큰 소가, 큰 코끼리가 또는 독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이 백정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면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할 적에나 똥을 눌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바로 내 부처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한마음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뭐든지 거기다 놓고 갈 때, 모든 걸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데 한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체제불이 일체 보살이, 일체 조사가 다 그냥 한마음으로 들어서, 한 찰나에 드셔서 그 묘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거예요.

이 묘한 도리를, 이 무심도법(無心道法)을 여러분이 그렇게 갑자기, 도심으로써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터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은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행하는 게 문제죠. 백 가지 천 가지를 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행을 못한다면, 그건 한 가지 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렸죠.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있어서 오신통이라는 것도 거기에 귀결돼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 모두를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은 자동 컴퓨터입니다. 자동 컴퓨터! 거기에서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심안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잘 알아야 천안통이 생기는데 바로 천체망원경이 거기에 해당됩니다만 물질로 된 거는 심안의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이통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무전통신력인데, 한생각에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통신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감히 물질의 무전통신기가 거길 따라가겠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타심통이라 하면은 남의 속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남의 마음만 알면 '도'냐. 아니죠. 우리가 풀 한 포기, 진드기 하나의 마음도 알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서로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그 얼마나 즐겁고 이 세상이 낙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비유해서 탐지기라 할 수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서 물질로 나오긴 했지만 아니, 내 타심통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신족통 하면 지금의 팩시밀리로 비유해도 되죠. 내 마음이 화(化)해서 원자에서 입자로 화하고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안팎을 제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면서 보신, 법신, 화신이 전부 보호하면서, 불성 자체가 전부 모여서 불바퀴로 돌아가는 거기에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데 물질인 팩시밀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러한 역할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팔만대장경의 증거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절에는 지금 시절대로 용어가 다릅니다, 뜻은 다 같지마는. 사는 도리도 같습니다마는 그 이름, 용어가 자꾸자꾸 다르게 변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용어를 모르는데, 자꾸 옛날에 부처님이 하신 용어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금덩어리 보석이라 할지언정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저버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을, 골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지닌다면 구태여….

또 한 가지,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다닌다 이럴 때 백팔염주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백팔 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번뇌 망상이 아니라면 무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백팔(百八)이라는 건 뭐냐? 백(百)은 무(無)입니다, 무! 팔(八)은 사무(四無) 사유(四有) 한데 합쳐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그 생각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 망상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허허 웃고 '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너희들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놓으면 되지,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사람 된 그 마음, 좋고 나쁘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거를 아는, 다스리는 마음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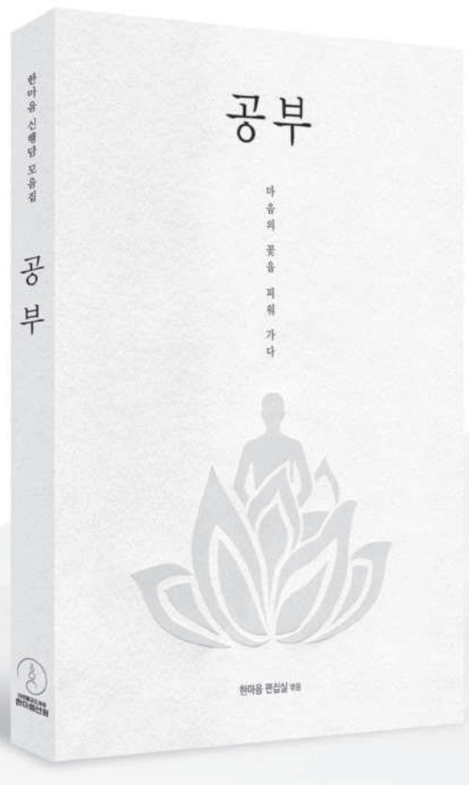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모두가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오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이건 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 되고, 증오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 웃음이 띄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주인공은 '착하고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요것 버리고 조것 버리고 다 버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정복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밉다고 버리고, 또 즐겁다고 들이고 이런다면 하나도 없이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결돼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요새 대구나 저 마산,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전부, 그래도 각 지원마다 신도님들이 몇십 명씩은 다 맛을 보고 가는데, 어느 때는 가서 그 맛본 것을 내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 병고 또는 가난,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것을 병으로 알지 말고 재료로 삼아서 거기 놓고 실험을 하면은 그게 체험이 돼요. 하나하나 체험이 되고 그때에 그 맛을 알고 들어간다면 홀연히 내가 밝아지고, 홀연히 밝아지면 '아하! 이게 모두가 독불장군이 없구나. 회사에도 직원이 있으니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니 직원이 있구나!' 하고 웃어지죠. 허허허.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느껴지고, 보는 대로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이 나면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조상이 따로 있고 또는 부처님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도 한 성이요, 바로 본도 하나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부처님이 해골바가지에 큰절을 하신 원인도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 즉 윤회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뿌리를 찾아서 내 뿌리도 없다는 그 도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제 아님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셨죠. 수억겁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돌아가면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세월을 걸어왔다는 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손수!

그렇건만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행해 본 예도 없고 한 번도 말해 본 예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렇게 수없는 나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꽃을 한 송이 들어서 가르치셨고, 꽃을 들고 대중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고, 또는 다자탑(多子塔)의 한 자리에서 반 자리를 내놔 줘서 가르치셨고, 관(棺)에서 두 발을 내놓으셔서 또 평발을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그 평발의 도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발이 납작해서요? 발이 이렇게 뭉툭하게 평지가 돼서 평발이라고 한 건 아닐 테죠?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도 별성도 모두 다 딛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진드기 발 하나 이 땅에 딛지 않은 게 없어. 풀포기 하나도 지렁이 하나도 이 땅을 딛지 않은 게 없으니 그 발을 하나도 빼놓지 않은 게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뜻으로 알아야지 말귀만 듣고서 그걸 반복해서 달달 외운다면, 그것은 허탕 가는 길이죠. 나는 경전도 배우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큰 스님한테 점검을 하러 수없이 다녔습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높고 위대하고 부자고 이래야만이 이 공부 하는 거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도 바로 평등한 것입니다.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는데 여자 빼놓고 남자만 제일이라고, 비구만 제일이라고 해서 비구니를 우습게 안다면 자기 나온 곳을 모를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자궁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알겠지요. 산하대지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고 저 태양계는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기를 주고, 기를 넣어 주고, 공기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다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렇게 이거 (컵을 왼손으로 옮겨 드시며) 하나를 못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안 되고,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흙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죠. 불, 물, 바람, 흙, 사람 이것도 우주 개공을 바로 이 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어느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거지 자격 없이 나온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 조끄마한 것이 딱정벌레니 뭐니 그런 벌레들을 보면 '저런 거 없어도 될 텐데….' 하겠지만, 그런 걸 여러분 몸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끝 간 데 없이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화되면서 자꾸자꾸, 별성도 자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성 원리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재차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다. 그 의식에서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밉게 보이든지 뭐, 이런 걸 모르고 두서없이 나오게 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다스려서 그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화신이 화(化)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까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보살이다,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니깐 큰 도사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큰스님이다 해도 이건 전부 다 오산입니다.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예전에 저 원주에 있었을 때, 어느 동네에서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젖소가 아프고 뭐, 별소리가 다 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가 아파서 죽는다면, 우리는 살림을 다 망쳐 버리고 애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보살로 화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전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허허허. 독사를 건지기 위해서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독사를 보고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진드기 하나 안 돼 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 자체의 그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걸 떠나서, 모두 여러분은 기복으로 가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내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만 아는구나. 내 뼈다귀만 아는구나.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고선 눈을 감으실 겁니다, 아마. 모두 알아야 '저 형상은 내 형상이요, 저 몸은 내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마음 내 생명과 둘이 아닌 게 되죠.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다 알고 난 뒤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때까지,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부처가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또 여기가 강당이 좁아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만약에 저 바깥에 한 시간, 두 시간을 섰다 할지라도 구도하는 자세로써 임한다면 아마 그렇게 원망은 안 할 겁니다. 남이 다 해 놓은 거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기가 해서 또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으니까요.

>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입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잘살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이럭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다 주는 옷을 이렇게 입어서 이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이 내 스승이자 바로 여러분이 부처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저 산중에, 껌껌할 때나 또는 밝았을 때나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끝없는 길을 한번 걸어 보자고 했을 때, 바로 돌부리를 차서 이 발톱이 빠졌을 때, 그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그 돌도, 바로 돌부리를 차게 한 것도 바로 내 스승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인 것을 모르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는 거죠. 돌이 그러고 말을 하더군요. 허허허. 돌이 발톱을 빼놓고 하는 소리가요, "네 발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 발이라면 한발은 못 돼. 그러니 발톱이 빠져도 싸지. 아니, 이 도량 전체가 한도량이건만 도량을 어디 가서 또 찾아?" 아, 그 돌이 나한테 그러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허, 이 돌이 바로 돌부처구나! 요만한 거 하나, 돌부처 아닌 게 없으니 그 돌부처 속에서 그 생수가 수없이 나오니 말이야.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 그것들을 먹고 악하면 악한 대로 독이 되고, 선하면 선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 되니 그것 참 희한하구나!' 아, 그랬다고요. 그러니 어디 부처가 따로 있으며 어디라고 정해 놓은 데에만 부처가 있습니까? 저 나무 한 그루 선 것도 부처입니다. 이제 그만 말할까요? 그만 말하고 여러분의 질문 한마디 들을까요? 내가 질문을 할까요?

질문자1(여)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큰스님 예?

질문자1(여)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 깨닫게 해 달라고요? 좋지요. 깨닫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모두가 스승 아닌 게 없으니 스승 찾아서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 준다면 여러분 배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 여러분은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다 먹으면. 그러니 밥을 해다가 여러분한테 상을 차려서 드리긴 하나,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배가 부를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도를 깨우쳐 줍니까? 허허허.

그래, 질문 한마디 했죠? 여러분에게 내 이 말 한마디 할까요? '쥐가 고양이를 쫓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는 겁니까?' 한마디 대답해 보시렵니까? (잠시 기다리시다) 뭐라고 혼자만 중얼중얼하십니까? (대중 웃음) 아, 되나 못 되나 대답들 좀 해 보세요! 모두 도인들이 되어서 그냥 전부 그냥 부처들이 다 되었군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한마디도 할 게 없거든요.

질문자2(여) 스님 말씀 듣고 세 번 왔으나 못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큰스님 실컷 보세요. (대중 웃음) 실컷 봐도요, 거죽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고깃덩어린 아무리 봐도 흩어지면 송장이야. 그러니깐 보시려면 아주 진짜로 잘 보세요. 그래, 기껏 그 대답이에요? (대중 웃음) 그러니 쥐가 고양이를 쫓고 고양이가 쥐를 쫓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나가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몸만 흩어졌다 뿐이지 다시 태어나는데, 잘못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한생각을 잘하면 위로는 부모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뿌리를 찾아서 내 뿌리도 없다는 그 도리를 여러분은 꼭 증득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한마디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요런 종지라면 나도 종지지 어떡합니까? 사람이 손을 폈다가 오그릴 줄 알고 오그렸다가 펼 줄을 알아야 이것이 불제자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는 것도, 어느 한쪽만 끊어져도 우리는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콧구멍은 내리 뚫리고, 소 콧구멍은 치켜 뚫려 가지고선 바람, 비, 흙먼지가 전부 날려서 꽉 막혀 버렸대요. 사람은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끼면 그냥 탁 막힐 테니까 이걸 아래로 뚫어 놨거든요. 그런데 소 콧구멍은 치켜 뚫려 가지곤 바람, 먼지, 비 그런 게 들어가서 꽉 막혀 버렸다거든요. 그러니 왜 그렇게 소 콧구멍은 치켜 뚫렸는지, 왜 사람의 콧구멍은 내리 뚫렸는지, 그 이치를 여러분은 잘…, 또 거기에 매달려서 온통 그것만 붙잡고 걸리지 마시고요.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걸릴 것도 없고 걸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앞뒤 없는 그 피리 소리, 이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하면서 요리를 한답니다. 그럼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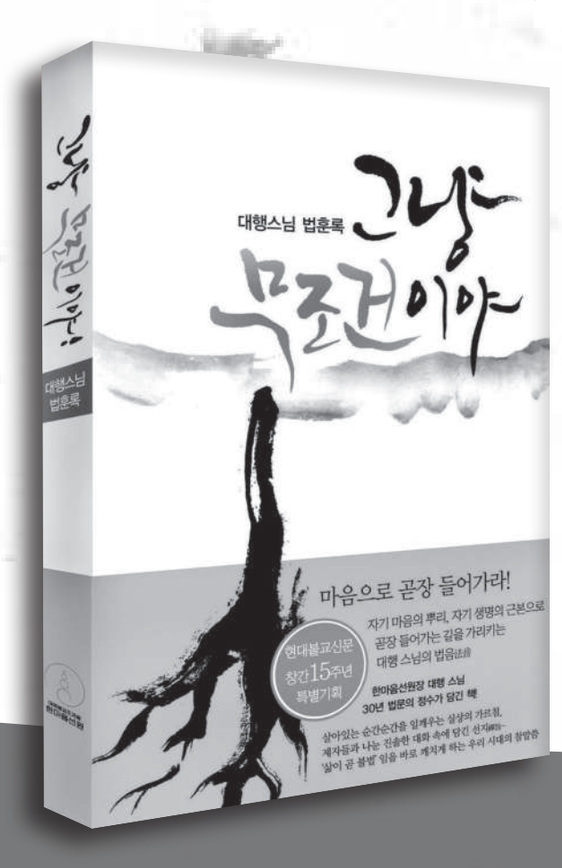
내가 못나서 남들처럼 뭐, 주먹을 불끈 내밀고 뭐, 주장자를 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장자를 들고서 그렇게 때려 봐요. 들어오면 때리고 나가면 때려 봐요. 허허허. 지금은 정신으로 들어와도 때리고 나가도 때리고, 정신력으로 주장자를 쥐어야지, 만약에 보이는 데서 그럭한다면 "왜 때리기만 해? 왜 들어오면 때리고 나가면 때려?" 이러고 그냥 죄 가 버리니까, 불씨를 심을 수가 있어야죠.

질문자3(여) 포항에서 여기까지 스님 뵈려고….

큰스님 포항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포항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미국이나 서울이나 또 안양 바닥이나 멀고 가까운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고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려면 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같이 도반으로서 한자리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1년 7월 21일 정기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중독 해법은 '명상 디톡스'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아이콘 리더 비아이 마약 의혹 등
마약 이슈 증가… '청정국' 옛 말
스마트폰 · 게임 등 중독 현상 만연

중독, 갈애 원인으로 일어난 집착
집착은 습관성 장애인 '업장'으로
종국엔 자기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불교 명상으로 감각적 욕망 조절
깨달음 요소 계발 중독 원인 제거

최근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올해 상반기는 유독 마약 관련 이슈가 많은 것을 보면, '마약 청정국' 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마약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분명 중독이라는 현상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스마트폰 중독부터 게임, 도박 등 그 범위와 층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래 중독이란 알코올 · 카페인 · 마약류와 같이 인간의 몸 안으로 흡수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남용 등의 행동변화와 금단내성 등의 증상이 있을 때를 말하며,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Intoxication, 약물 중독)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증상인 의존증(Addiction)을 동시에 일컫는다.

불교에서는 중독을 '갈애를 원인으로 일어난 집착'으로 본다. 집착을 빠알리어로 '우빠따나(Upadana)'라고 하는데, '강렬하다' 는 뜻의 '우빠(Upa)' 와 '움켜쥐다' 는 뜻의 '아다나(Adana)' 의 합성어이다. 결국 집착은 강력하게 움켜쥐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집착을 하지 않는다. 갈애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집착을 하게 되고 다시 집착은 집착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습관에 해당하는 업을 생성한다. 이어서 습관인 업은 습관으로 인한 장애인 업장을 형성하게 되고, 습관성 장애인 업장은 끊임없는 부딪침으로 삶을 휘몰아 숙주를 파멸로 몰아간다.

갈애로 시작된 집착 네 가지 중에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다. 〈상윳다니까야〉에서 사리뿟따는 "참으로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지 않고 알맞은 분량을 알지 못하여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 충만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는 '마약류' 의 특징을, 한번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그 양을 늘려야 하며(내성),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이상이 나타나며(금단현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전에 언급된 '알맞은 분량을 모른다' 는 대목은 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인 중독을 붓다는 어떻게 해독(解毒)하라고 했을까?

붓다는 명상을 통해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빛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울이며 충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마음챙김 · 법의 간택 · 정진 · 희열 · 고요함 · 삼매 · 평정심' 이라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계발하여, 전에 미처 부수지 못하고 전에 미처 쪼개버리지 못했던 중독의 원인들을 부수고 쪼개버리라고 요청한다.

명상 연구를 위한 일반 모형에 의하면, 중독 현상을 보이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명상훈련을 꾸준히 시키면 행복과 자유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경전에 언급된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고 깨어있음에 전념' 하는 깨달음 요소 활성화 훈련이, 움켜진 집착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요즈음 해독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톡스' 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독에 물든 몸과 마음을 해독하기 위해서 하는 명상을 대표 디톡스로 활성화시켜 으스스한 중독의 시대를 이만 종결시켰으면 한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軍포교사 지원에 관심을

군포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지금까지 군법당을 지켜 온 군지원 포교사들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는 유선재 대불련 군포교지원단장이 참여했다. 올해 7월 군포교지원단 10주년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들은 군포교 현장에서의 실상은 씁쓸함만을 더했다.

이야기의 골자는 그동안 군승법사들을 보조해 군법당에서 법회를 진행해 온 군지원 포교사들이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이를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군승법사들은 현재 140여 명 수준으로 군법당 수는 400여개가 넘는다. 이론상 군승법사 1명당 3~4개소를 관리해야 하지만 전방부대의 경우 산악지대 등 지역특성과 주말 종교행사인 시기적 특성으로 군승법사가 챙기지 못하는 법당이 많다. 그렇기에 군승법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전법활동을 펼치는 민간 법사들의 존재가 소중하다.

현재 포교사단 내에는 900여 포교사들이 각자 팀을 이뤄 군법당에서 전법에 나서고 있다. 포교사단 서울지역단만 하더라도 13개 팀이 22개 군법당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포교사단은 전국적으로 60여개 팀이 200여개 군법당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을 비롯해 일반 스님들도 민간인 성직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말이면 자비로 몇 시간씩 이동해 법회를 진행한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대급 이하 법당을 찾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 포교사는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위문품뿐 아니라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며 "팀으로 활동하는 것도 법회 준비부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만원에서 5만원씩 모아 법회를 진행하는데, 장병들이 많이 오면 그것대로 문제"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상대적으로 군포교 활동이 힘들기에 포교사단 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2014년만 해도 1000여 명을 상회했지만 현재는 9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비교적 젊은 신규 포교사를 우선적으로 군포교 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기존 활동의 공백을 메우기만도 벅차다.

정청현 포교사단 부단장은 "전반적인 포교사 감소와 포교사들의 고령화 등으로 충원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그 무엇보다 원력에 근간해 활동하기에 원력이 감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포교 현장의 법사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운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2012년 구성된 군포교지원단체협의회는 분기별 모임을 갖고 있지만 올해에는 모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현역 군승법사들과 군지원 포교사들이 소통하고, 민간 법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부터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군법당에 법회를 주도하는 이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법회를 위해 찾는 불자장병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원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社 說

정부, 문화재관람료 대책 강구하라

결국 곪아 터졌다.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에 정부가 해결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교계도 더 이상 버틸 수 만은 상황이 됐다. 불교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왔다. 1962년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면서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관리 편의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다가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만 빠져나간 셈이다.

결국 사찰은 아무 문제없이 기존 방식대로 관람료를 징수했을 뿐이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른바 '산적' 소리를 들어야 했다.

사찰은 50년째 피해자 신세다. 국립공원에 강제로 사찰 토지를 편입시킨 게 1967년이다. 국가는 이런 사유지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했을 뿐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불교계의 이번 외침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갈등을 방조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방생, 생명살림으로 확대돼야

불교환경연대는 최근 버드나무 심기를 통해 강 유역의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방생 운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물고기 등을 강에 방생하는 것보다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많은 사찰에서 이러한 운동의 본뜻을 받아들여 방생 인식을 바꿔갔으면 한다. 오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방생을 해왔다. 해마다 보통 음력 3월 3일이나 8월 보름 등 일정한 때에 맞춰 방생을 해왔다. 강과 바다에 떠돌아 다니는 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지내는 수륙재도 크게는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이런 방생은 살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 선행과 달리 적극적인 선행의 실천으로 널리 권장된다. 4세기 경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명경〉에서는 유수장자품을 통해 방생의 유래를 전한다. 여기서 전하는 내용은 단순히 물고기를 구제한 것이 아니라 뭇 생명을 살리는 생명존중, 그리고 자기희생의 이타행을 설한 것이다.

산 목숨을 해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의 생명 살림에 나서라는 것이 방생의 참정신인 것이다. 근래 기복행위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방생이 많다.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기 위해 잡은 물고기나 짐승을 놓아주기보다 애초부터 사냥과 낚시, 천렵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방생의 실천이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생명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다.

방생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생법회에 앞서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이에 근간하여 방생법회의 방식도 바꿔야 한다. 그 무엇보다 산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불살생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생활습관을 바꿔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34 (구포동)
- 주 지 : 법호스님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GREEN EARTH

녹색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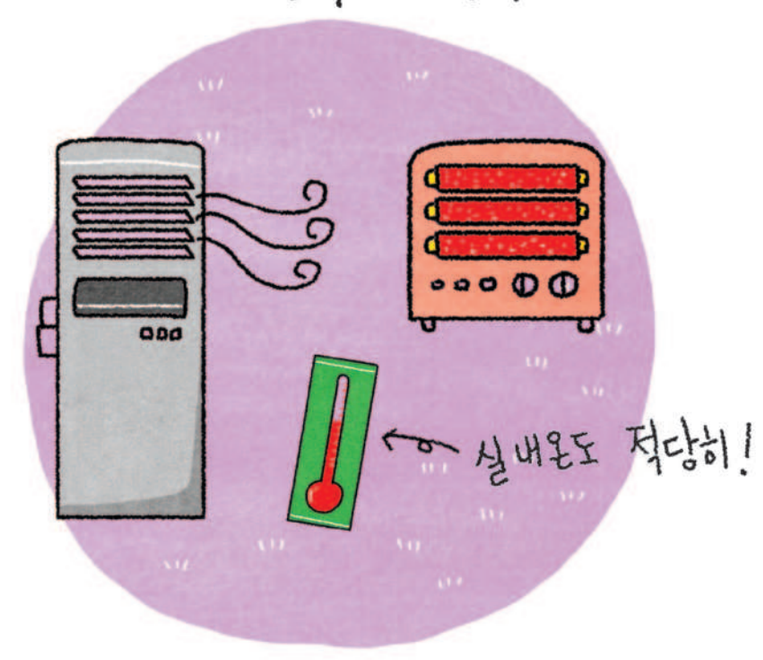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너·나·우리’ 인연법으로 東國 이끌다



자광 스님은… 1959년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스님은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승진,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비구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을 역임했다.

특별인터뷰 **자광 스님** (동국대 이사장)

군승서 교육자로 변신

2016년 6월 동국대 이사장 선출

학교식당 이용 · 법당 예불 생활화

솔선수범하며 주인 의식 일깨워

‘불교 종립’ 정체성 세우기 위해

매년 법인 산하 수계법회 봉행

‘원융회통의 리더십’ 보이다

미화원 사태 당시 대타협 이끌어

올해 직고용… 상생 관점서 해결

초파일 · 명절 오찬하며 소통 행보

19대 총장 선거, ‘축제’로 유도해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6년 동국대는 안팎으로 펼쳐진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18대 총장 선거 당시 ‘종단 개입’ 구호 아래 불거졌던 일련의 사태들로 2015년 11월 동국대 이사들이 순차적 사퇴를 결의했고, 12월에는 일면 스님이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여. 2016년 6월 20일 열린 제304회 이사회에서 제39대 이사장으로 자광 스님을 선출했다.

자광 스님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 은사인 경산 스님 1963년 동국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종비생 제도를 만들었고, 자광 스님 자신도 종비생 1기로 동국대에서 수학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자광 스님은 “학내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화합과 대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취임 일성을 내보였다.

화합 · 자비심으로 달려온 3년

그로부터 3년. 현재 동국대의 학내 분위기는 편안하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도 잇달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에서 동국대는 창업 지원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동국대는 지난해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는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1년까지 약 11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됐다.

이밖에도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10억원), 평생교육체제 지원(30.5억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24억원), 초기창업패키지(19.4억원) 등 주요 연구사업들이 선정되며 2년 연속 700억 원대 연구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동국대의 이 같은 성과의 기저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학내 화합을 위해 동분서주한 이사장 자광 스님의 노력이 있었다.

자광 스님이 보여준 3년 간 행보에는 ‘화합의 리더십’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노동자들과의 대타협이다.

지난 2018년 1월 29일부터 동국대는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로 내홍을 겪었다. 청소를 하지 못한 학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파업 시작 후 86일인 4월 24일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그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런 극적인 타결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의 제안이 있었다.

“2018년 초부터 수개월 간 지속된 미화원 파업 장기화 문제를 ‘상생’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더군요. 부처님의 넓은 자비심으로 학내구성원인 청소노동자들을 안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노조 모두 서로 어려운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회 · 화합 · 상생’을 도모하자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이죠. 물론 미화원 전원을 직고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약자인 미화원들의 애환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시 노조에게 한 ‘직접 고용’ 약속은 올해 2월 1일자로 이뤄졌다. 관련 노동자 97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고, 앞선 1월 30일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과 前 총장 보광 스님이 직접 단주와 직원증을 수여하는 조그마한 행사도 열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자광 스님은 청소미화원을 비롯해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경비 근무자, 주차 관리근무자 등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갖고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과 명절마다 청소미화원 · 경비 · 기능직 근무자 대상 오찬을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한 아름 선물도 전달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경비 · 주차관리 근무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고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자광 스님의 바람은 하나다. 모두 학내 구성원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며 ‘상생 ·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말로 저도 흙수저 출신입니다. 스님으로 살다가 이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청소미화원, 경비 근무자 등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도 학교는 생활 터전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서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직고용된 미화원 모두가 이제는 동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제19대 총장 선거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19대 총장 선거는 유례없는 개방형 선거로 10명이 출마했다.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부터 토론회까지 모든 선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자광 스님은 “학내 구성원 가운데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는 등 원융회통의 선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총장은 학교 이끌고 나갈 운영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매번 이전투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19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관습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 슬로건을 ‘총장 선거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를 세우고 화합 안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유롭게 출마하고 자기 정견을 발표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19대 총장 선거는 분명 이전과는 달랐다고 자부합니다.”

‘불교 종립’ 주인의식 고취

화합과 함께 자광 스님이 학내 구성원에게 강조한 것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인의식’이다.

자광 스님이 강조하는 불교정신은 ‘지혜 · 자비 · 정진’이라는 동국대 교훈에 정립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로 동국대에 왔을 때 마치 주인이 없는 학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유하면 목표를 잃고 항해하는 배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대장경이 학교의 상징이고 학문의 근거가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교 종립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광 스님이 택한 방법은 ‘솔선수범’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특별기획
동국대 일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개소

B5
문화
대형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B6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8번 사찰 순례 여정


올해 1월 30일에 열린 동국대 직접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 2018년 대타협 당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이사장 자광 스님의 노력이 담겼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팔정도 광장 연등 점등식에서 이사장 자광 스님, 윤성이 총장을 비롯한 학내 인사들이 연등행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호국 연무사 자광 스님 공덕비 제막식.



동국대 112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된 로터스관 기공식.


2017년 동국대 의료원 사기 진작을 위한 피자 공양.

“이사장, 명예·권력직 아닌 무한책임 직책”

‘자광 스님’

B1면에서 계속

매일 9시 30분 출근 후 첫 일과는 정각원에서 예불이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학내 구성원들을 만났고, 외식은 일절하지 않았다. 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매년 1회 수계법회를 열고 빠짐없이 참여했다.

“학내 대중들에게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부터 학교의 주인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와 종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발전의 상생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수년 간 교내 갈등을 유발했던 이슈인 ‘종단 개입’이라는 구호는 우리 대학의 설립 주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계종은 동국대를 설립한 주체입니다. 1906년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는 조계종단 주요 사찰들이 정재를 출연해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발전이 동국대의 발전이며, 동국대의 발전이 종단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과 동국대는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수행처 군포교 현장

자광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이전에는 1세대 군승으로서 더욱 이름이 알려졌었다. 스님을 군포교의 길로 이끈 것은 은사 경산 스님이었고, 사문으로 이끈 것은 유년의 부침때문이었다.

자광 스님은 3남 4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한국전쟁 당시 희생됐고, 어머니는 9살에 돌아가셨다. 이후 경찰이었던 형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유년시절 생겨난 외로움으로 청소년기 심한 가슴앓이를 했다. 어느 날 전주에서 만행 중이던 스님을 만나 마음 속 고민을 털어놨다. 스님은 청소년 자광에게 수행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자광 스님은 곧장 화엄사로 찾아가 출가했고, 당시 화엄사 주지 최진여 스님의 소개로 경산 스님의 문도가 됐다. 자광이라는 법명은 경산 스님에게 받은 것이다.

종비생 1기로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자광 스님은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군포교 일선에 뛰어든 것은 장병들을 포교하라는 스승 경산 스님의 명을 받든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려는데, 군승으로 갈 스님이 부족하다며 입대를 요청받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를 가라니 난감했어요.”

1970년 임관한 자광 스님은 1995년 국방부 군종실장(대령)을 끝으로 전역하기까지 25년 동안 군포교에 매진했다. 군승으로서 자광 스님이 남긴 성과는 대단하다. 군종실장 시절 장병들의 종교 현황에 맞춰, 기존 불균형했던 군승과 군목의 비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군승법사 정원을 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1세대 군승’ 전설이 되다

은사 경산 스님 뜻에 따라 입대해
25년 군포교… 전역 후 승단 복귀
2009년 2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출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 완료

가진 것 환원하며 이젠 회향 준비

“학교 아는 사람 이사장돼야” 충언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으며 세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광 스님은 다시 삭발염의하고 비구로 승단에 돌아갔다.

“주위에서 연금받으면서 사회에서 불교활동을 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도 스님이었고, 지금도 스님이고, 앞으로도 스님입니다. ‘환귀본처(還歸本處)’는 당연했습니다.”

종단에 복귀한 자광 스님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다. 여기서도 군포교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불사인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불자들의 성금으로 130억 원을 모연해 불사를 완성했다.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반지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 동참 때마다 이 불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 같은 스님의 노력에 감사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2018년 호국 연무사 경내에 공덕비를 세우기도 했다.

동국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최근 자광 스님은 동국대 숙원사업인 로터스관 건립 불사에 관심이 높다. 동국대 중문(혜화문) 일대에 연면적 2만5341m² 지상 3층,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로터스관’은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가 로터스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서다. 재학생과 교수, 직원 등 총 1만8000여 명이 상주하는 동국내는 좁은 부지로 인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 2012년부터 중문 일대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며 건립 예정지 공원구역 해제, 중문 일대 주택 및 국유지 매입, 기획 설계 용역 및 지질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2018년 3월에는 신축건물 명칭 공모를 통해 ‘로터스관’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5월 112주년 개교기념식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십시일반 모연된 금액은 84억원으로 불자와 동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로터스관 건립은 동국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725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동국대를 사랑하는 불자와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달 뒤 자광 스님은 제39대 이사장 소임을 마무리한다. 후임 이사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제언해달라고 하자 곧장 “이사장은 권력과 명예직이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무한책임이 있는 직책으로 학교를 아는 사람이(이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있는 후임이 왔으면 하는 자광 스님의 바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마지막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는 죽을 준비하러가야지. 아름답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내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진 것 다 환원하고 이제는 회향하러 가야지요.”

평소 자광 스님은 교내 안팎 행사에서 “여러분이 있으니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 여러분이 있다”며 인연법을 강조했다. 자광 스님이 계획하는 ‘아름다운 회향’이라는 인연이 어떻게 나타날지 벌써 기대가 된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 신호탄 쏘다



동국대일산병원은 10개 병상 규모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은 6월 18일 병원 11층 불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앞에서 참석 내빈들이 개소를 알리는 테이프커팅을 하는 모습.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등이 서상연 센터장(사진 왼쪽 서 세번째)에게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기금을 후원한 정심행 보살 기념 현판을 보고 있다.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족실. <아미타경> 등 불교 경전도 갖춰져 있다.

東大일산불교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6월 18일 개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초 종립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해원)은 6월 18일 병원 4층 중강당에서 불교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인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 동국대 감사 호산 스님 등 스님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 서상연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장, 장소영 화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었지만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시설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번 개소식 전부터 보다 전문적인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출생은 의사가 책임지지만, 죽음은 이제 불교가 책임져야 한다”며 “불교에서는 시다림이라는 죽음에 관한 일체 의식이 있다. 이미 대중들을 천도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의식과 사상이 있음에도 이웃종교에 비해 많은 부분을 놓쳐왔다. 이번 호스피스 병동 개설로 인해 다시금 불교계가 대중들의 마지막 길을 보살피는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도 “꼭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생각에 감회가 깊다. 불교계와 병원이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이번에 개소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총 10개 병상으로 임종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가정의학과 교수인 서상연 완화의료센터장을

임종 · 상담 · 가족실 등으로 구성
10개 병상 규모, 향후 20병상 확대
내생 발원 · 참회 등 프로그램 진행
“불교 생사관으로 마음 고통 치유”

필두로 김달용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 전문의 2명과 수간호사 1명, 병동간호사 5명, 전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센터 직원들을 구성한 상태다. 여기에 지도법사 덕유 스님과 영적돌봄 스님들로 이뤄진 팀을 운영하고 5명의 자원봉사자도 힘을 보탠다.

일반 호스피스와 달리 불교 호스피스 답게 불화 그리기, 인등기도, 108참회염주 만들기, 가족치유 및 명상, 내생 발원 불공기도 등이 진행된다.

서상연 센터장은 “2003년부터 호스피스에 관한 활동을 진행 중 증상완화에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느꼈다.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많은 환자들에게 불교의 생사관을 전하고 법사님들과 불자 봉사자들과 함께 활동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지도법사 덕유 스님도 “불교계에 호스피스 관련 조직은 많았지만 불교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은 처음이기에 향후 불교 호스피스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의 생사관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함을 덜고, 생의 마지막을 편안히 정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정심행으로 명명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센터 설립 기금을 기부한 정심행 불자를 기리기 위해서다. 정심행 불자는 이번 불교 호스피스 센터 설립 취지를 듣고, 건립 기금 대부분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서는 장소영 화가가 본인의 대표작 2점을, 자광 스님이 공기청정기 등을 병원 측에 기증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5월 9일부터 불교 종립병원서는 첫 개소 후 만반의 준비를 거쳐왔다. 가톨릭계 병원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병원 규모에 맞게 20병상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불교 호스피스는 이제 시작이다. 부처님 가르침 아래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31)961-8220

불교호스피스 병동서 완화의료 받으려면?

동국대병원서 진료중인 환자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로 진료의뢰 및 예약을 하면되며, 의료진 상담 후 병동 입원이 결정된다. 타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는 담당 주치의를 통해 동국대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면, 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 후 호스피스 병동 입원이 결정된다. 구비 서류는 진료의뢰서, 처방 및 수술, 항암 등 치료기록과 자료다. 연명의료 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 입원이 제한 될 수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일반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암환자는 중증질환으로 본인부담 5%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상급병실료나 특진비 등 비급여 항목도 있으며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입종을 환영합니다 전남 장흥 계 암 스님 | 전남 순천 연 오 스님

본 종단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9~6/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세상에 끌려 다니지 않는 단단한 마음공부	서광스님	학지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신편 승가의범	보운스님	혜안
3	사찰의 비밀(불교 상징과 문화에 대한 안내서)	자현스님	담액북스	8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월호스님	조계종출판사
4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9	두려워하지 않는 힘	진우스님	불광출판사
5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10	마조어록 역주	마조도일/강승욱	운주사

불교철학 통해 찾아 헤맨 난제 힌트 발견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지음/불광 펴냄/1만 4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서 이루어진 불교철학 강의를 기반으로, 지난 기간 교수-학생 간 불법(佛法) 토론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현지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 책의 저자인 전담 교수 홍창성<사진>의 21세기형 현답으로 그동안 우리도 잘 알지 못한 불교철학의 논리적이고 정교한 측면을 잘 드러낸 강의 모음집이다.

불교철학 정교한 측면 드러내
강의에 서양 철학의 관점 도입
논쟁 대상 난제에 제언 덧붙여

이 책에서 저자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미국 현지의 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과 방법으로 불교철학의 핵심들, 이를 테면 '무아(無我)' '윤회(輪廻)' '연기(緣起)' 등의 기본 교리부터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지인 '깨달음' '열반(涅槃)'에 이르기까지 논한다.

이 책의 강의서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미국인들답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에 불교 철학을 논리적으로 따져 가며 바라본다는 점이다. 또한 불교철학의 주요 내용을 강의함에 있어 서양 철학의 관점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사실 저자의 전공 분야는 서양 철학이다. 이는 불교철학을 강의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책을 읽다 보면 서양철학의 걸출한 인물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버트런드 러셀 등의 이론(시각)과 붓다의 그것을 비교 · 분석하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영국 공리주의 철학의 기본 원리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자들의 삶을 대입하기도 하고, '공(空)'의 번역어인 'emptiness'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공'을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과 함께 바라보고 분석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붓다의 철학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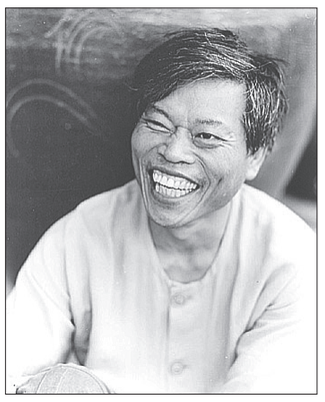
그동안 강의서 학생들이 제기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그 질문에 대한 첨예한 토론과 논증을 비롯해 불교계에서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철학적 난제에 대한 제언 등을 덧붙여 완성시킨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서양철학의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불교철학의 정교하고, 지적이며, 논리적인 측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해 오며 철학적 난제를 맞닥뜨린 이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학자 농부가 부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아픈 데 마음 간다는 그말

윤구병 지음/호미 펴냄/1만 3천원



이 책은 철학자이자 농부인 윤구병<사진>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본 이 세상이야기다. 오래 전에 불교 잡지 〈해인〉지와 최근에 〈불광〉지에 쓴 글 29편을 모아 함께 실었다. 꽤 시간 차가 있는 글을 함께 묶었지만, 윤구병의 불교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앞서가며 예리하다.

선사들의 화두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새롭게 질문을 하곤 한다. 그 답들을 찾아야 만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구병이 곱씹으며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해학이 넘치면서도 세상에 대한 혜안과 중생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하다.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아픈 데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앉은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해인〉〈불광〉에 쓴 글 29편 모아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 염송
해학적 불교용어 풀이 재미 '솔솔'

글은 격한 공감과 절묘함에 무릎을 치게 하기도 하고 유쾌하게 웃다가 때로는 이렇게 발칙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통쾌하기도 하다. 유마의 방에서 벌어질 일에서는 유마 힐은 석가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배운 도반으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몫을 달리 맡았다는 설도 있다며 석가는 부드럽게, 유마는 날카롭게 찌르듯이 제자를 교화했다는 얘기를 무척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남전의 고양이와 조주의 개' 같은 글은 화두 남전참묘(南泉斬猫)와 조주두재초혁(趙州頭戴草鞋) 장면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인양 실감나면서도 절묘하게 그 뜻을 풀어낸다.

윤구병은 몇 년 전부터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를 앞당기기 위한 평화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며 왜 이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밝힌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뇌하며, 윤구병은 오늘도 불국토를 꿈꾸며 '영세중립 통일연방 코리아'를 염불하듯 염송한다. 더불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과 특히 쓰레기 문제 해결과 마을 공동체를 살릴 방법을 모색하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되짚어 본다.

우리말 지킴이로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윤구병이 지금 당장은 낯설지만 되살려야 할 우리말과 어려운 한자를 쉽게 풀어쓰기 위해 애쓴 흔적이 글 곳곳에 배어 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이런 말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욕구가 마구 치솟기도 한다. 그러고 딴지를 거는 듯하지만 적확한 그만의 독특하고 해학이 넘치는 불교용어 풀이는 곱씹을수록 읽는 재미가 솔솔하다.

김주일 기자



농담

종명 스님 지음/부연사 펴냄/1만 5천원

선농일치, 한국 불교 경제적 모델

이 책은 남방불교같이 탁발이 아니라면 소욕지족이라는 무소유적 삶을 위해 선농일치가 우리 불교의 경제적 모델이라 생각한 저자가 이를 좀 더 현대의 생태적 가치로 확대해 지역 공동체 도농공동체로 실현하면 수행과 포교를 일원화 할 수 있다고 보고 10년 동안 실천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저자인 종명 스님은 농사 지으랴 지역민들과 함께 하랴 정말 힘도 들고 보람도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라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농담' '사담' '법담' 등 세 주제로 나뉜다. 특히 '법담' 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 이야기들, 즉 인물이나 사건 등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 교훈

생산 노동, 불교계 대안 중 하나
'농담' '사담' '법담' 등 세 주제로

이 될 만한 이들을 실었다. 또한 만해 스님을 비롯해 일제 독립 운동을 펼쳤던 스님들의 주장을 통해 불교개혁 당시 주요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짚어봄으로써, 근현대 한국 불교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고찰 했다. 아직도 유효한 점은 없는가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생산 노동이 우리 불교계의 진일보에 대안 중 하나임을 이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불교인들의 대사회적 활동, 즉 중생 구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들의 주장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병원 등을 통한 구제 확대, 재가와 출가, 그리고 모든 종단을 초월해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불교대학, 생협, 봉사단, 시민 활동 등에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싯다르타, 뮤지컬로 만난다

대형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9월 5~29일, 우리금융아트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 ㈜엠에스엠시는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뮤지컬 '싯다르타(2시간, 인터미션 20분 포함)' 를 공연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연대기 형식이 아닌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린다.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았던 19세의 그 날, 출가를 결심하고 궁을 나섰던 29세의 그 날, 그리고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 날. 그 세 번의 '그 날' 을 이야기한다.

싯다르타, 2600년 전 인도 카필라국 숫도다나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중생을 위한 법륜(法輪)의 주인, 붓다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온다. 태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의 길은 그의 길이 아니었다.

열아홉 되던 해, 태자 싯다르타는 꼴리야의 왕 숩빠붓다의 딸 야소다라를 아내로 맞아 결혼한다. 그 후 카필라국은 대국 중 하나인 코살라국과 전쟁을 치른다. 전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스승 크산띠데와를 잃은 태자 싯다르타는 깊은 번민에 빠진다.

어느 날, 싯다르타는 계급사회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통해 생로병사를 목격한다. 궁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다. 어릴 적 자연에서 보았던 약육강식의 세계와 힘겨움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음을 맞아야 하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통해 싯다르타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깊은 사유를 시작한다. 스물아홉 되던 해, 마침내 그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궁을 나선다. 출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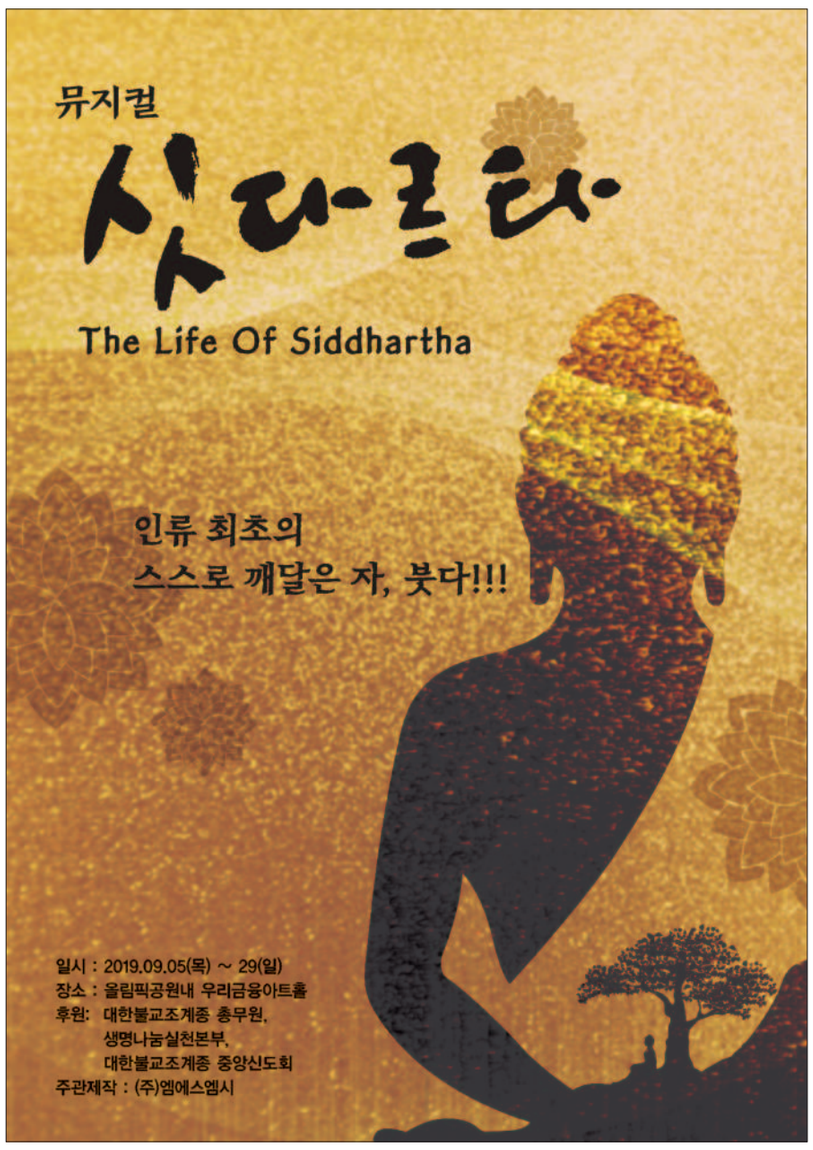
6년 동안의 고행을 끝낸 싯다르타는 보리수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든다. 마침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후 깨달음에 이른다. 서른다섯 되던 해의 '그 날' , 세 번째 그 날, 부처가 된 그 날이다.

뮤지컬 '싯다르타' 는 세 번 의 '그 날' 을 통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자연에서 보았던 약육강식, 인간의 괴로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 세 번의 큰 질문을 통해 불자관객들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일반 관객들과는 우리 모두가 연기(緣起)에 의해 모두 이어져 있음을 일러주고자 한다.

'인간 싯다르타' 의 이야기를 현대의 감성으로 표현한 22곡의 뮤지컬 넘버와 음악들은 고대 인도의 타악기를 이용한 의도된 이질감과 드라마틱한 전개를 통한 신선함이 교차한다. 첫 번째 그 날은 사랑을 테마로, 두 번째 그 날은 불안한 미래를 테마로, 세 번째 그 날은 연결을 테마로 하고 있다.

뮤지컬 '싯다르타' 는 '고증과 해석' 이라는 대전제 아래 무대는 상징성을, 의상과 분장은 간결성을, 조명은 구별성을 키워드로 삼았다. 무대는 당시 카필라성과 농경제 그리고 시타림(숲)을 재연했으며, 의상과 분장은 태자시절과 고행기의 싯다르타를 표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조명과 시스템은 무대의 공간을 다양하게 분리, 조합하여 시공간의 제한적 요소를 극복하고자했다.

뮤지컬 온조, 후토스 등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김면수가 대표프로듀서를 맡았다. 연출은 뮤지컬 미스피가로, 홍길동 등을 연출했던 김승원이 맡았고, 작곡은 뮤지컬 스타라이트, 서울이 되다 등의 음악을 작곡했던 작곡가 조범준이 맡았다. 안무는 김성한(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 예술감독)이 맡았다.



뮤지컬 싯다르타 포스터

대표(김면수)와 연출(김승원)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류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어야 하는 고단함과 괴로움에 대해 사유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에 놓일 것이며, 그로 인해 인류는 점점 본연의 인간성을 잃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닿았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분한 문화적 처방으로 뮤지컬 '싯다르타' 를 제시한다. 이 세상은 연기에 의한 것이며, 우리 모두 인연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싯다르타의 설법을 이 시대의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엠에스엠시는 2006년 팝페라뮤지컬 카르멘, 2008 뮤지컬 미스피가로, 2010년 뮤지컬 홍길동, 2011년 뮤지컬 후토스, 2013년 뮤지컬 온조, 2015년 뮤지컬 서울이 되다, 2016년 뮤지컬 스타라이트 등 대형 창작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제작했다.

이번 뮤지컬 '싯다르타' 의 남자 주인공 싯다르타 역에는 뮤지컬 배우 이유와 2017년 팬텀싱어 준우승자 곽동현이 출연한다. 이유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 뿌리 깊은 나무, 신과 함께와 영화 어게인, 드라마 눈이 부시게 등에 출연했다.

곽동현은 2005년 해변가요제 대상, 2010년 추풍령가요제 대상, 2017년 JTBC 팬텀싱어 준우승 등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최근 TV 프로그램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등에서 폭발력 있는 가창력을 선보였다.

여자 주인공 야소다라 역에는 아이돌 출신의 최은미와 노을이 출연한다. 최은미는 아이돌 걸그룹 투엑스(Two X)의 "은"으로 활동했으며, 영화 보이언시, 어뎁테이션 등에 출연했다. 노을은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으로 드라마 닥터 진, 좋맛탱에 출연했다. (02)487-1089.

詩와 음악의 아름다운 조우

대안 스님 시낭송 음반 3종 출시
이익선 낭송, 음악 왕준기 작곡

"그대여 / 가을로 갑시다 // 잎 지고 / 산속이 투명해지면 / 우리 둘만의 걸음걸이가 / 뒷산에서도 다 보일 때를 기다려서 / 가을 속으로 걸어갑시다 // 다시 돌아오지 않고 / 계속 걸어가면 / 거기에 겨울이 / 기다리고 있을 거외다 // 그 겨울자락에 흰눈이 / 펑펑 내리면 / 길을 내면서 걸어갑시다 / 사람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외다 / 그 길로 겨울이 되어 버립시다"

– 가을에서 겨울로 걸어갑시다 / 대안 스님

대안 스님(진천 도솔암 암주)이 시낭송 음반 3종<사진>을 출시했다. 1집은 '어머니의 선물' , 2집은 ' 마당' , 3집은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다. 3개의 음반에는 총 44편의 시낭송이 수록됐다. 대안 스님의 시를 기상캐스터 이익선 씨가 낭송했다. 음악은 작곡가 왕준기 씨의 곡이다.

가족, 인연, 자연 등 삶에서 마주하는 주제들로 만들어진 스님의 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음반은 시의 느낌과 운율을 또 다른 빛깔로 옮긴 왕준기 작곡가의 음악과 이익선의 씨의 '시' 를 넘지 않으면서도 '시' 를 넘어서는 낭송이 어우러져 또 다른 미학을 연다.



대안 스님은 "문학성과 음악성, 회화성을 동시에 갖춘 시만이 낭송이 가능하다. 시는 많아도 낭송이 가능한 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낭송이 노래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고 이번 음반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 음반은 BBS불교TV에서 6월 15일부터 하루에 2회씩 1년 동안 동영상으로 방영한다.

1988년 나주 다보사에서 회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대안 스님은 송광사, 해운정사 등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1994년 시낭송 음반을 출시했으며, 2003년 〈시세계〉에서 등단했다. 2014년 조계사 국화축제초대시화전 등 다수의 시화전을 열었다. 시집 〈이대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 〈낮 새의 슬픔〉, 〈어머니의 선물〉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빛기 대회 우수작품전

6월 19일~7월 14일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6월 19일 오후 4시 강당에서 '제35회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빛기 대회' 시상식을 갖고 7월 14일까지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꿈틀꿈틀 살아난 신라!' 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한다.

지난 5월 27일 열린 대회에서 심사를 통해 으뜸상 4명, 버금상 12명, 솜씨상 20명, 꿈나무상 80명이 선정됐다. 최고상인 으뜸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관동초 6학년 배서진(기마인물형 각배/빛기), 국립중앙박물관장상은 현곡초 3학년 박소윤(그림을 그리는 부처님/상상화), 국립경주박물관장상은 황성초 1학년 우다교(목이긴 항아리/수묵화)와 황성초 2학년 장선아(부처님과 꽃/을 채색화) 어린이가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으뜸상 부처님과 꽃(장선아 · 횡성초 2년)



시코쿠 최남단 땅끝에 서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㉓ 38번 사찰 순례 여정



38번 콘고후쿠지 참배 후 사찰 앞 전망대에서 바라본 태평양. 콘고후쿠지는 시코쿠의 최남단 도량이다.

현지인 제공한 자동차 오셋타이
25km거리 38번 사찰 쉽게 도착
처음엔 자가용 이용 순례 비판적
운신 어려운 어르신과의 만남 후
"순례수단보다 진정성 중요" 확신

마음 바꾸니 다양한 순례자 만나
인연 모여 땅 끝에 설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낭을 안고서 차에 올라 있었다. 뜬금없는 자동차 오셋타이를 받아 편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지난번에 차로 태워 주겠다고 할 땐 트럭이었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자가용이다. 그래도 차 내부가 큰 편이라 넉넉하게 앉을 수 있었다.

"그 삿갓이 참 특이해서 말이지. 그런데 한국 사람일 줄이야!" 할아버지는 지금껏 여러 순례자들을 태워줘 봤지만 외국인은 처음이라며 신기해했다. 시만토시 근방에 산다는 할아버지는 소일거리삼아 88개소에 들어있는 사찰들을 참배하고는 한다며 종종 순례자들을 "주워서" 태워주고 있다고 했다. 과연, 나는 오늘 할아버지가 붙잡아 다 차를 태워 주셨으니 그 표현이 적절했다.

"이왕에 88개소를 도는 거, 조금 돌아가지만 순례길을 따라 가보자구."

할아버지는 최단거리를 일러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원래의 도보 순례길은 이도로 옆의 인도를 따라 하염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 조용한 길, 에어컨을 틀어놓은 차 안에서 배낭을 안고 있으려니 졸음이 솔솔 몰려온다. 그래도 긴장을 풀고 조는 것은 아무래도 실례이니 눈을 부릅뜨고 애써 잠을 쫓아낸다. 할아버지는 그런 내 모습을 봤는지 피로가 많이 쌓였을 터니 눈을 붙이라고 했다. 그래도 먼 거리를 태워주는데 실례가 된다고 하자 예전에 한 순례자는 차를 타자마자 코를 골며 잤다고 웃어보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졸음이 좀 가셨다. 차는 구비진 순례길을 따라 달렸다.

"원래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걷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나 어릴 때엔 순례자고 마을사람들이고 모두 산을 넘어 다녔지."

"그래서 순례길 지도에 길이 여러 갈래인 거군요?"

"원래 이 길은 짐승들이 다니던 오솔길이었어요. 옆을 봐요. 모두 해변이나 낭떠러지 아닌가."

"근데 왜 지금은 다들 여기를 순례길로 아는 거죠?"

"그거야 차도가 놓이고, 길이 편해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원래는 순례길이 아닌데, 관광객이나 순례자들을 모으려고 '옛날부터의 순례길' 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차로 그렇게 30분가량 달리다가 길가에 야트막한 순례자 휴게소를 지나친다. 역시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젠콘야도(善根宿), 카네히라안(金平庵)이다. '첫 순례 때에는 저곳에서 묵었지' 하고 추억에 잠겨 있으려니 할아버지가 고개로 슥 가리키며 이야기를 한다.

"저기가 젠콘야도라고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네, 첫 번째 순례 때 저기서 묵었어요."

"아, 그런가? 그땐 집주인 할머니가 계시던가요?"

"아니요.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고, 아드님이 대신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면 꽤 예전에 다녀갔군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프셨던 할머니는 결국 별세하시고, 한때 문을 닫고서 없어지나 했는데 한 만화가가 외지에서 와서 인계 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도 카네히라안에서 묵었다는 후기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 보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

카네히라안을 지나쳐 10분 정도 더 달리자 38번 콘고후쿠지(金剛福寺)에 도착했다. 차를 탄 편의점에서 38번 사찰까지 25km. 꼬박 하루를 걸어야 하는 거리를 단 4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문명이 정말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한다.

실제, 자가용으로 순례를 하면 열흘 정도로 88개소를 모두 돌 수 있다고 한다. 또 순례를 하다보면 종종 캠핑카를 끌고 순례하는 순례자들이나, 차에 텐트를 싣고서 캠핑장들을 돌며 순례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시코쿠의 최남단을 알리는 지표.

처음 순례 할 때에는 이 같이 관광이나 레저처럼 순례를 하는 이들을 그리 곱게 보지 않았다. 도보 순례자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순례를 하는데 반해, 편하게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다니는 게 무슨 공덕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 두 분을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중 한 분은 바로 다음 사찰인 39번 엔코지(延光寺)를 향하던 중에 만났다.

그 할머니는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안고서 애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 모습에 도와 드리려다가, 그만 말을 건넬 기회를 놓쳐서 도와 드리지 못했다.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서 계단을 내려가신 후에나 말을 할 수 있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가시는 걸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느닷없는 순례자의 사죄에 놀란 듯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아이고, 아니에요. 순례자님이 도와주시려 한 것 만 해도 감사하지요."

할머니는 공손히 손을 모아서 나를 향해 합장 반배를 했다. 나도 황급히 합장하고서 반배로 답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고개를 드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할머니는 합장을 하신 채로 울먹이며 말했다.



38번 콘고후쿠지 본당의 모습. 본존은 천수관세음보살, 비사문천, 부동명왕의 삼존불이다.

"감사하게도,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대사를 뵙습니다. 괜찮으시면 지팡이(오츠에)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에,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라 나는 지팡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알아들어 동문서답을 했다.

"네? 제 동료(오츠레)와는 39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곤 다시 지팡이를 청하시기에, 그제야 바로 알아듣곤 황급히 지팡이를 건넸다. 그러자 두 손으로 공손히 지팡이를 받쳐 들고 허리를 숙여서 예를 올리며 기도를 했다.

"코보 대사님, 코보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리도 오래간만에 대사님을 길 위에서 뵙습니다. 앞으로도 대사님을 종종 뵙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돌려주면서, 나이가 들고 다리가 불편해 단체 순례도 못가는 몸이라고 한탄했다. 다만 할아버지와 코보 대사의 묘가 모셔진 고야산만 두 번 참배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고야산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장을 하고 말했다.

새파랗게 젊은 순례자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며 하시는 말씀이 가슴이 참 먹먹히 와 닿아서, 나도 두 손을 모으곤 허리를 숙였다.

"살림이 부족한 순례자입니다만. 부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꼭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할멈이 눈물이 날 거 같네요. 순례자님도 조심해서 순례하셔요."

그래. 이렇게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은 버스를 탈 수도, 전차를 탈 수도, 자가용을 탈 수도 있다. 순례를 하는 방법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저 순례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 가짐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 보니 더욱 다양한 순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노숙 대신 자가용인 경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순례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길을 이동하던 순례자, 반려동물들에게도 흰 백의를 입히고 같이 오는 순례자 등. 이 시코쿠 88개소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가 모여서 완성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여러 상념들 속에 도착한 38번 콘고후쿠지는 822년, 이곳을 방문한 코보 대사가 천수관세음보살과 인연이 있는 땅임을 알고 불당을 세운 것이 그 시작이다. 그와 동시에 시코쿠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도량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땅 끝이다.

아열대 기후가 강한 지역이 되다보니 사찰의 분위기도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조경수로 야자나무가 여기저기 보이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어 마치 열대지방에 자리한 사찰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참배를 마치고 사찰 앞의 전망대로 나아갔다. 등대 앞의 지표는 이곳이 시코쿠 최남단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앞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어떤 섬이나 바위도 없어 너른 태평양이 멀리 수평선까지 한 눈에 보였다.

'아! 내가 여길 왔구나. 시코쿠의 땅 끝을 밟았구나.'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이내 코를 슥 문지르고, 다시 다음 순례길로 걸음을 옮겼다.

〈자유기고가〉





박재완의 PhotoEssay



상념(想念)

절 마당을 지날 때마다
한 편에 쌓인 기와들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조용히 적힌 이름들이
이유 없이 다가와 머문다
어쩌다 홀로 하는 식사처럼
적적한 그림자와 마주한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어느 날은 아버지가
어느 날은 멀어진 친구의 이름이
그 그림자를 지난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㉟ 송광수 前 검찰총장 · 배임호 숭실대 대학원 교수

'교화복지' 함께 고민한 소중한 인연

2007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두 사람이다. '사형수의 대부' 인 나와는 반대편에서 살았던 그는 수많은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송광수 前 검찰총장이다. 그리고 그 인연에 다리가 된 사람, 숭실대 배임호 교수다. 그날의 인연으로 많은 학생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10여 년째 스승의 날이면 그들을 만난다.

당시 배 교수는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 대학원에서 '교정복지론' 강의를 하고 있었다. 배 교수는 매주 이색적인 강사들을 초빙했는데 나와 송 전 총장도 그 강의에 초빙됐다. 한 사람(나)은 사형수 살리기의 대부였고, 한 사람(송 전 총장)은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강의는 숭실대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있었다. 나는 커다란 십자가가 걸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했다.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그 인연은 사형수 A 씨로부터 시작됐다.

사형수 A 씨는 20대 때 한 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했고, 사형수가 됐다. 하지만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인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8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할 수 있었다. 교정복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던 배 교수는 연구를 통해 A 씨를 알게 됐고, 이론에 치우친 교정복지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 씨를 강사로 초빙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형수 교정에 많은 시간을 보낸 나와 많은 시간을 법집행을 위해 살아온 송 전 총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전무후무한 강의였다. 대학강의의 새로운 모형이었다. 사형수로서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과 사형수 교화와 구제를 위해 온 생을 바친 사람 그리고 많은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전직 검찰총장이 같은 강의에 참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교정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큰 계기였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의 종교가 모두 달라 그야말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불교이고, 송 전 총장은 가톨릭이고, 배 교수는 기독교다.

학문적 배경과 살아온 과정이 각기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을 통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삶을 나눔으로써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같았다. 당시의 강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회복적 사법정의를 대학원 수준으로 강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정복지를 선진화시키고자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 강의를 담당했던 배 교수는 우리나라 교정의 문제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 서로 다른 위치의 세 사람은 '교정복지' 라는 하나의 화두를 안고 한 마음으로 고민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1989년 사형을 당한 고금석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4명을 살해했다. 그는 수감되기 전 거칠고 용서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수감 후 3년 동안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영치금을 모두 불우한 재소자 가족에게 나눠주었고, 모기로 들끓는 감옥에서 일부러 웃옷을 벗었던 사람이다. 내가 교화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신분은 비록 사형수였지만 지금도 내게는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2009년 5월 스승의 날 모임에서 만난 송광수 전 검찰총장(왼쪽), 삼중 스님(가운데), 배임호 교수(오른쪽).

'교화복지론' 특별강사로 초빙돼
배 교수 강의로 송 전 총장 인연

나는 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교정교화가 필요한 궁극적 이유는 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단죄나 처벌보다는 교화중심의 교정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당시의 강의는 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단순히 몇몇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보다도 내가 오랜 세월을 바쳐온 일에 또 다른 성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당시의 강의는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신념을 돕는 일이었다. 문서포교와도 같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정교화의 현실과 중요성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송 전 총장은 30년 넘게 수사현장에서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법집행을 위해 살아왔다. 그가 사형수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2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나를 만나면서부터였다. 오래 전 다른 길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큰길에서 또 다시 만났다.

뜻깊은 인연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온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인연의 장을 마련해 준 배 교수와 또 다른 시각에서 교정복지에 대해 큰 길을 제시해주었던 송 전 총장은 교정교화에 온 생을 바친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 그날의 만남과 인연이 더욱 기억되는 것은 당시의 강의로 인해 많은 제자의 인연을 만들게 된 일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 깊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닮고 싶은 배임호 교수님, 그리고 송광수 전 총장님, 삼중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중략〉 교정복지론 강의를 통해 송광수 전 총장님과 삼중 스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송광수 전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교정복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제 시야와 한정되었던 틀을 넓혀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 삼중 스님의 특강을 통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 계산서를 잘 써야한다는 것, 내가 준 것은 잊고 남에게 받은 것을 기록하여 기억하라는 말씀에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9년 스승의 날 모임에서 한 수강생이 한 인사말이다. '나비효과' 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커다란 바람과 구름과 비와 햇살을 만들 듯이 그 날의 인연 인연이 커다란 불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남기고 또 남기고 싶은 인연이다.

정리=박재완 기자

TOYLAND
사랑스러운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곳! 토이랜드

사랑스런 인형과 선물이 가득한 곳!
토 이 랜 드

대표 황정성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7
전화 : 031) 424-2976



다양한 상품이 매장에 전시되어있습니다.
토이랜드로 놀러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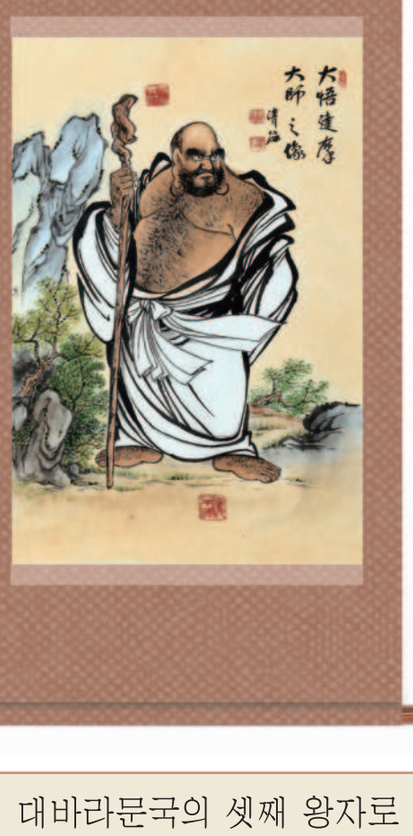
Mini girl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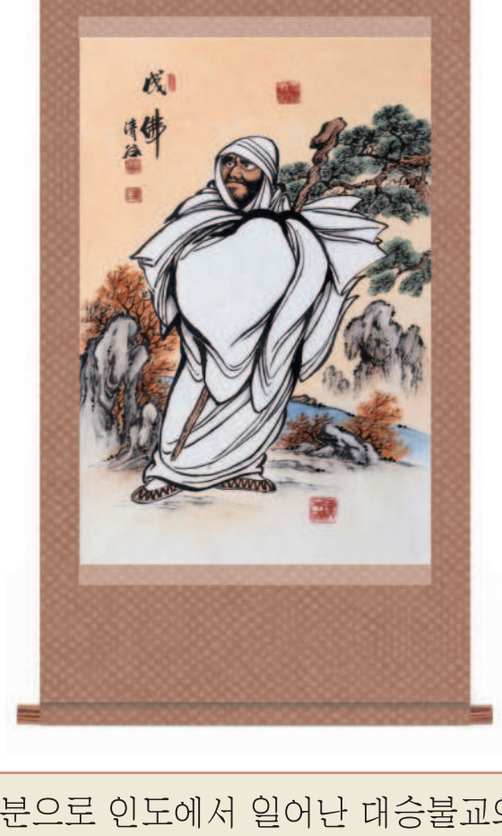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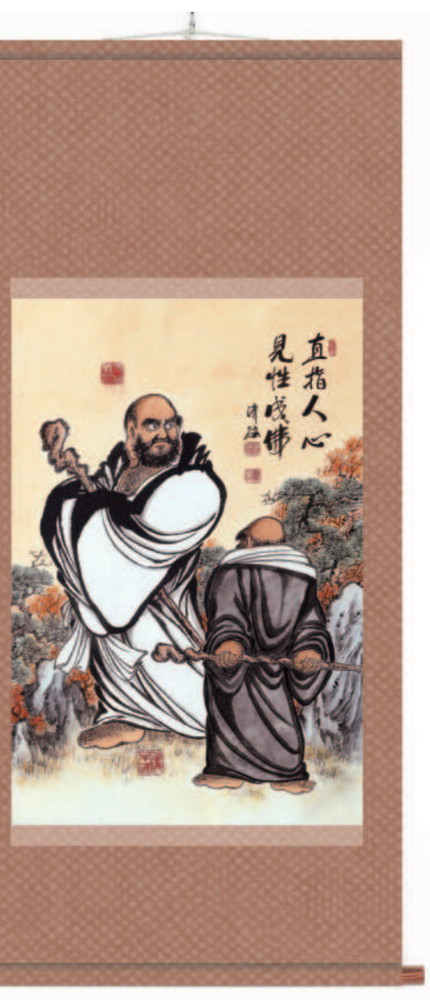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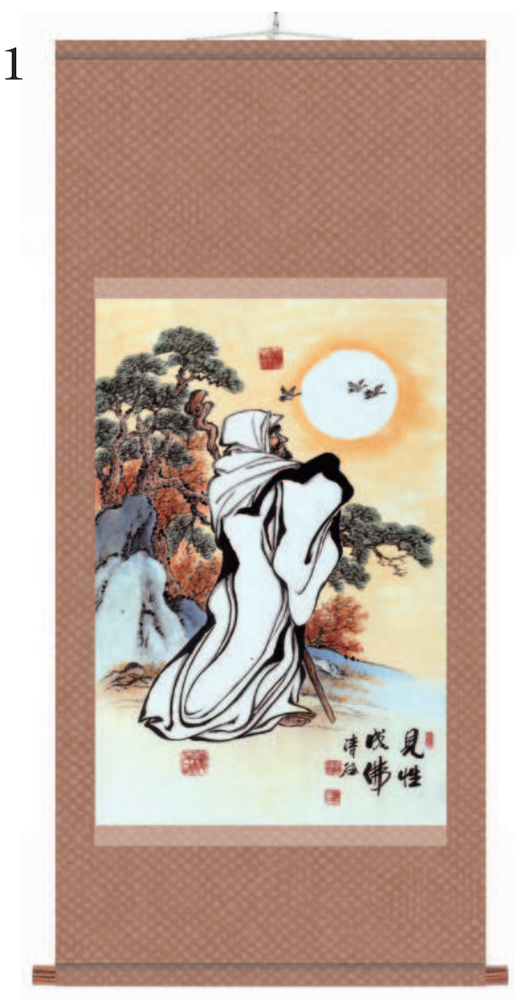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4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